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IC
뱅크오브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3 제 6799호

Wednesday, November 8, 2023 A



7일 총선거, 민주주의 축제 현장

2023년 현재 소셜미디어가 저변화 되고,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 했어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아 선거하는 행위는 미국 국민으로서의 주권행사이자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7일, 미국 전역에서 총선거가 열렸다. 특히, 총선이 열린 버지니아에서는 한인들 비록 수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로이터]

영킨 주지사 대선 출마 현실성 있나

SPECIAL STORY

물리적 시간 제한 내년 수퍼화요일에나 가능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오는 7일 총선 승리 이후 대선에 도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의론이 높고 있다. 총선에 승리하더라도 각 주별로 정해진 예비경선 입후보 마감일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각 주 예비경선에 참여하려면 수만 명 규모의 유권자 서명이 필요하지만 이 작업이 순조로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알라바마 입후보 마감일은 버지니아 총선 직후인 11월10일이다. 아칸소

는 11월14일, 메인은 11월20일이다. 캘리포니아의 조기 마감일은 11월 28일이지만, 12월15일 후기 마감일에 맞추더라도 5만2천명 이상의 공화당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모두 17개주가 12월말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이들 주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월과 2월의 경선에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며 빨라야 3월5일 버지니아 등 15개주가 참여하는 수퍼화요일 경선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선거전략가 데니스 레녹스는 2012년 대선 당시 미트 롬니 전 매

사슈세츠 주지사의 대선 캠페인을 회상하며 “당시 민주당 지역인 일리노이주에서 유권자 서명을 받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분초를 다투며 돌아다녀야 했다”면서 “늦게 출마하고 입후보하는 후보가 승산이 있으려면, 어느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이름을 새겨야 하는 하는데,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험이 많은 공화당 선거전략가 벤자민 긴스버그도 “영킨 주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일축했다.

▶3면 ‘영킨 주지사’로 계속 김옥채 기자

한인 집주인-강도 총격전

집주인 “집안에 있던 가족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총격”

LA한인타운 인근 주택에 침입한 강도와 집주인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연말 시즌을 앞두고 금품을 노리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타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건은 주말이었던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타운과 맞닿은 미드시티 지역 주택 현관 앞에서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지역에 대해 올림픽 경찰서 애런 폰세 서장은 본지에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맞다”면서도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6일 주류방송사를 통해 공개된 CCTV에는 사건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집주인이 열쇠를 찾으며 현관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복면 등 2명이 담을 넘어 침입했다. 곧 이어 이 중 한 명이 남성에게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장수야 기자

▶4면 ‘총격전’으로 이어집니다



4일 오후 LA한인타운 인근 미드시티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담을 넘어 침입한 강도가 권총으로 위협(사진 왼쪽)하자 저항하던 집주인이 굳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냈고 도망가는 강도 용의자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 [KTLA캡처]

“헌재 8대1로 통진당 해산... 큰 짐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8대1로 받아들여 통진당을 공식 해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며 국회를 혁명 투쟁의 고두보로 활용한 통진당을 해산시킨 건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었다고 회고했다. 박근혜 회고록 ▶17면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풀만지못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 비즈니스 보험

치솟는 보험료를 저희가
확 잡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병원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재정적 책임까지 커버해 드립니다.

비즈니스 보험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손실과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지켜드립니다.

똑똑한 보험! 스마트 보험!
703-639-0882
smartbiz@solomonus.com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윤 대통령, 박근혜 사저 방문 “박정희시절 배울 점 국정 반영”

현충원 추모식 후 12일 만에 재회 박 “오신다고 해 마당 잔디밭 이발” 윤 대통령 좋아하는 밀크티·감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맞이하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 시죠”라며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고 이도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 대통령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시죠.”(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듭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발까지 한 거죠.(웃음)”(박 전 대통령)

7일 오후 윤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나누는 인사말이다. 현관 계단 아래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한 박 전 대통령은 대문 안쪽에 재임 시절 정상외교를 했던 사진을 따로 전시해 뒀다. 그 한가운데에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사람이 함께 오솔길을 걸어 내려오는 사진이 자리했다.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임을 상징하는 바로 그 사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세 번째,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인 윤 대통령 대구행(行)의 하이라이트는 박 전 대통령과의 환담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

도식에서 1년5개월 만에 만났던 두 사람은 12일 만에 다시 한 시간가량 얼굴을 마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밀크티를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농도까지 신경써 준비하고, 과일도 윤 대통령이 특히 좋아한다는 감과 배를 준비하는 정성

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차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읽어 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느냐”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까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과 대구 물 부족 사정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이 수소차에 관심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환담을 마친 두 사람은 잠시 사저 앞 정원을 산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문 박 배웅을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해 두 사람은 대문 계단에서 헤어졌고, 박

전 대통령 측 유명하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10·26 추도식에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사저 방문 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위원회대회’ 축사에서 “지난 4월 서문시장 방문 이후 일곱 달 만에 다시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행사 뒤엔 칠성 종합시장을 찾아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을 떠나기 전엔 “상인분들과 약속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 안타까웠다. 상인 여러분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호지

김대기, 문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민간에선 분식회계로 크게 처벌”

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런 일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백준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가 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상황을 언급하며 “사법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미국 당국자를 고발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문서 속 ‘도·감청에 의한 정보가 아닌 휴먼트(인적 정보)에 의한 정보’란 표현을 언급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면서 “(간첩 발언은) 개인에 대해서도 모욕이고, 비서실·안보실 직원들에겐 더 큰 모욕”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이르면 이달 내 단행될 대통령실 개편에서 김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임되는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나머지 수석들은 대부분 교체 가능성이 크다. 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엔 각각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도은 대변인이 유력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새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고, 후임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안상훈 사회수석까지 출마하게 되면 수석 6명 중 이관섭 수석을 제외한 5명이 바뀐다. 현일훈·성지원 기자

‘농협회장 연임법 로비’ 의혹… 민주당 의원끼리 투서 폭로도

현직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대치하는 다른 쟁점법안과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끼리 투서 폭로전 및 설전을 벌이면서다.

문제의 농협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만희, 민주당 윤재갑·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과거 연임제로 되돌리는 게 골자다. 단임제는 민선 1기 한호선(제14~15대) 전 회장을 필두로 원철희(제16~17대)·정대근(제18~20대) 회장까지 연달아 횡령·뇌물·배임 등 부패범죄에 연루돼 실형을 받으면서 2009년 도입됐다.

야당 내부 갈등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소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이 법안 통과를 의결

하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부장연합’에서 제기한 공문을 보셨나”며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성희(농협중앙회) 회장은 ‘셀프 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농식품부 등에 로비하고 있다. 중앙회 기획실을 통해서 비자금 조성을 해준 회장이 직접 의원을 비밀스럽게 만나 비자금을 전달하고 있고, 로비 의원 명단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문서를 읽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연임 법안 통과 대가로 농협중앙회에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고 인사 로비 내용도 공개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성희 회장을 수신인으로 작성된 농협 내부 투서엔 “농협법 개정을 통해 연임하려고 A·B·C·D·E 등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청탁을 노골적으로 받아주시고”라며 호남 민주당 의원 5명의 실명을 거명했다. “E의원의 인사청탁인 P를 스

위원장님으로 보임하기 위해 임기 중인 K위원장을 내쫓아 버리시니 참으로 대단하시다”고 주장했다. 투서의 요약본은 일부 민주당 의원실에도 전달된 상태다.

지목된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의원은 “전혀 관계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했고, B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칼날 위를 걷고 있는데 로비 받아 법안을 처리하겠나”라고 말했다. C 의원은 “농협회장을 본 일도 없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윤준병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국회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P위원장 인사 건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입법 로비에 대해선 “법안 통과를 위해 고유의 대관 업무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해를 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오현석·정용환 기자

워싱턴 날씨 (°F)

9일(목)	77-52	12일(일)	62-38
10일(금)	54-43	13일(월)	56-38
11일(토)	60-39	14일(화)	58-40

11월 8일(수) 63~4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Under Contract, 유무금만 End Uni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3, 차고3, 1에이커, 멋진 플로터일!
---	---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	--	---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VA 총선, 1억5800만불 투입돼

이번 버지니아 총선에 모두 1억5800만달러의 정치자금 투입돼 상원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치뤄졌던 지난 2019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1월 대비 2023년 11월 물가상승률은 21%인 점을 감안하면 버지니아 총선 선거자금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버지니아 선거위원회와 비영리 단체 VPAP 등의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상원에서 1300만달러, 하원에서 1천만달러 이상 더 걸었다.

라우든 카운티 서부지역과 피커 카운티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상원 제31지구 선거에서는 후안 세구라 후보(공화)와 러셋 페리 후보(민주)는 지구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4년전에 비해 30% 증가



까지 모두 1100만달러를 모금하고 1천만달러 이상을 집행했다. 페리 후보는 10월 한달 동안 260만달러, 세구라 후보는 210만달러를 모금하는 등 연방선거보다 더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서부 지역과 매나사스 등을 포함하는 상원 제30

지구에 출마한 두 후보도 30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10월 모금 실적도 120만달러가 넘었다.

하원 제21지구(게인스빌, 헤이마켓)의 조쉬 토마스(민주) 후보는 10월에 만 180만달러를 모금해 하원 후보 중 2위를 기록했다. 토마스 후보는 존 스티어터 후보(공화)와 함께 총 모금액이 520만달러에 이른다. 하원 제22지구의 트레비스 뎀브라드 후보(민주)도 10월에 110만달러를 모금해 4위 기록을 세웠다.

9월말 시작된 부재자투표(조기투표, 우편투표 포함)는 모두 80만명으로 2021년 선거에 비해 42만명 더 적었다. 2021년에는 상원선거가 없었으나 주지사 선거와 하원 선거가 겹쳤기 때문에 투표율이 뜨거웠다. **김옥채 기자**



“친한파 당선 위해 한 표 행사 했습니다”

7일 버지니아 전역에서 주상하원 의원 140명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졌다. 많은 한인들도 투표소를 찾아 각자의 한 표를 행사했다. 애난데일 지역 투표소를 찾은 우태창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장은 “페어팩스 광역교육위원으로 출마한 데이빗 문 후보를 비롯 친한파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많은 한인 분들이 오늘 투표에 나섰다”면서 “오늘 페어팩스 지역에서 시니어 7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투표소에서 만난 강수자씨(에버그린 아파트 거주)는 “한인들이 투표 많이 해야 정치인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다”면서 “아시안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공약한 정치인에게 투표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투표소 앞에서 우태창 회장, 김정태 명예회장, 강수자 씨. **김윤미 기자**

▶ 1면 ‘영킨 주지사’에서 이어집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유능하고 경험많은 캠페인 스텝을 모아야 하지만 이미 다른 후보 캠페인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힘들다.

긴스버그 선거전략가는 “대선은 마치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면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수

백만달러의 창업 기초자금을 모으는 일을 그리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선 예비경선 추적 사이트 프론트로딩 HQ의 조슈아 푸트남 대표는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한두달 앞두고 달려들어서 승리할 수 있다



글렌 영킨

고 착각해선 안된다”면서 “이미 너무 늦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과 공화당 정치자금 큰손 토마스 피터피 등이 영킨 주지사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체 재로 칭송하지만 낮

은 인지도 탓에 출마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 진영에서는 당장 총선에 집중하고 승리한 후임인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성사시키는 등 보수적 행보를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대선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영킨 주지사의

대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총선 승리를 위한 여론 밑바탕 장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영킨 주지사 진영에서는 “모든 게 돈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영킨 주지사는 큰손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원래 갑부이기 때문에 여자하면 자기 돈을 퍼부어 수 있다”고 공언했다.

김옥채 기자

‘야동’ 이 선거 판세 바꿀까?

야동 유출 후보 완주

이번 버지니아 총선이 ‘야동’ 때문에 희미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VA 주하원의원 제 57 선거구에 출마한 수잔나 김슨(민주, 40·사진)이 각종 성적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담긴 사이트 ‘chaturbate’에 올랐으나, 김슨 후보는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서며 완주했기 때문이다.

이 선거구는 하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이번 총선은 상원 40석, 하원 100석을



놓고 다투지만, 사실상 소수의 초박빙 결합 지역구의 개표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제 57 선거구는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서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가 51.2%, 민주당 후보가 48.3%를 얻었으나 2022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0%, 공화당 후보가 49.1%를 득표했다.

비영리단체 버지니아 퍼블릭 액세스 프로젝트(VPAP)는 모두 11곳의 지역

구에서 초박빙 격차로 인해 당선자 공고가 늦춰지고 재검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중에서도 하원 제57선거구가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유출 동영상에는 다른 특정 성행위를 갖기를 원한다면 돈을 낼 것을 요청하는 대목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동영상은 스트리밍 생방송 서비스 도중에 발생한 장면을 담은 것이었다. 스트리밍 서비스 상관계 동영상만을 모아놓은 또다른 사이트 ‘recurbate’에는 김슨과 관련된 동영상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김슨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비디오 유출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치”라며 “이같은 범

죄가 나를 결코 주눅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 패거리들은 나와 내 가족을 공격하려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결코 나를 침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사가들은 양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가 바뀐다면 그 첫째 원인으로 김슨 후보의 포르노 논란을 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은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화당이 보복 포르노 금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기에 공화당의 역풍으로 작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VA 총선 출마자 네명 “가정폭력 연루”

이번 버지니아 총선에 출마한 상원의원 후보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명의 후보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으며 한 명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범 기소가 들어간 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십수년전 저지른 가정폭력 전과를 지니고 있었다.

이중 현역 상원의원 한명은 경선 도중 사퇴했으나 나머지 3명은 끝까지 완주했다.

양당은 모두 자당의 가정폭력 연루 의혹 후보에 대해 침묵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약 챙겨드리기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운동 도와드리기 ♥ 말 동무 해드리기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식사 도와드리기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텝,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프링필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내 형제 최석호에 지지를”

<가주 상원 37지구 후보>

현직 성 김 대사, 이례적 후보 최 후보 “한인 대표 역할 최선”

현직 외교관인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가 가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한 최석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사는 현재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도 일하고 있는데 현직 외교관이 특정 정당의 후보에 공개적인 지지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대사는 지난 4일 SNS 포스팅을 통해 “한국인 유산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최석호 후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내 형제인 그에게 지지와 지원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 친구가 돼 교류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혀줘 감사하다”며 “가주 의회에서 한



성 김 대사



최석호 후보

인의 대표 역할을 해내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사는 22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으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거치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최 후보는 가주 하원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73지구에서 4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내년 3월 예선에서 자신의 기존 하원 지역구가 그대로 속한 상원 37지구에서 도전한다.

최인성 기자

텍사스간가주 한인들 “대도시 문제 비슷”

“한인타운 지정도 되고 비즈니스도 늘면서 좋아졌지만, 대도시 교통 체증은 여기도 비슷해졌어요.”

남가주 다운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하다가 지난 여름 달라스로 이사해 잡화점을 준비 중인 대니얼 황(57)씨.

황씨 부부는 아직 고등학생인 딸과 가주의 고물가를 피해 텍사스를 택했다. 가주에서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집을 팔고 비즈니스를 정리해 150만 달러를 만들었고, 내년 초에 새집으로 이사하고 작은 점포도 열 계획이다.

지난해 황씨보다 먼저 탈가주에 나선 81만여 명 중 10만2000명(연방 센서스국 자료)이 텍사스를 선택했다. 같은 기간 가주로 이사 온 인구는 47만6000여 명이었다. 텍사스에서 가주로의 이주는 4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6만명 이상의 가주 주민이 텍사스로 순유출됐다.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 부담이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질로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 전체의 평균 집값은 30만 달러였다. 가주의 평균 집값이 무려 74만7352달러였으니 같은 돈으로 텍사스에서는 집을 두 채 살 수 있었던 셈이다. 모든 것을 수치상으로 비교해

삶의 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짐을 싸게 된 중요한 동기는 됐다.

주립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근 합격한 탐윤(33)씨는 오스틴의 한 회계 법인에 취업이 돼 다음 달에 이사한다.

그는 “가주에서 30~40대 직장인은 사실 제로섬(zero-sum) 게임이 돼 남는 것 없이 세월을 보낸다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했다”며 “연봉에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모기지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좀 더 빨리 독립하는 길을 찾다 오스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텍사스의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평균 2.91달러다. 가주는 같은 날 5.18달러를 기록했다. 현실 물가에서도 텍사스는 더 나은 선택이 된다.

달라스 한인회 한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한인이 고물가 도시를 떠나 휴스턴, 달라스, 오스틴으로 이주했으며 일부 다시 가주로 돌아간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큰 커뮤니티가 됐다”며 “마치 10여 년 전 애틀랜타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한인들이 도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샌앤토니오 뷰티 서플라이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새뮤얼 문씨는 “샌프란

시스코에 있다가 이쪽에 오니 좀 허전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 모이면서 한인 그룹이 커지게 됐다”며 “하지만 만약 지금 (텍사스로) 오려고 한다면 2~3년 전과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교외 집들은 이미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저렴한 달라스 인근 주택들도 매년 5~10%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동시에 대도시에는 수요의 포화점이 있어 기존에 없었던 문제점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휴스턴 인근에는 홈리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사건과 사고도 증가 추세다. 메트로 지역 인근 프리웨이에서 이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교통 혼잡과 정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만 한인들은 달라스 북서부 소재 로열레인에 ‘한인타운’이 지정되면서 한인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한인 폐암 권위자 ‘다양성 리더’ 선정

시티오브호프 에드워드 김 박사

폐암 분야 권위자인 에드워드 김(사진) 박사가 올해 ‘최고 다양성 리더’에 선정됐다.

6일 국립암연구소 지정 암치료연구센터인 시티오브호프(COH)는 부수석의사(Vice Physician-in-Chief)이자 오렌지카운티 암센터장인 김 박사가 의료 전문 매거진 ‘모던 헬스케어’가 꼽은 2023 최고의 다양성 리더(Top Diversity Leader)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던 헬스케어는 매년 전국 의료계 정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 성과를 보인 업계 리더와 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김 박사는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을 채용한 것을 포함해 임상시험 연구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최고 다



양성 리더에 선정됐다. 김 박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의대 교수를 지냈으며,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김 박사는 “민족, 인종, 성별, 소득 또는 우편번호와 관계없이 생명을 구하는 암 연구와 치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해준 모던 헬스케어에 감사드린다”며 “암 환자 20명 중 19명은 엄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격 기준으로 인해 임상 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바꾸기 위해 중요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 1면 ‘총격전’에서 이어집니다.

남성은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용의자에게 집어 던졌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 용의자들을 향해 발포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하던 용의자 중 1명이 뒤를 돌아보며 남성에게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에서 남성은 계속 도주하는 용의자들의 뒤를 쫓았다.

피해 남성은 사건 당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

에서 달려와 총을 겨누는 것을 느꼈다”고 FOX1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용의자들이 잡까지 나를 미행한 것 같았다. 집안에 아내와 5개월 된 아이, 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용의자들을 들어오게 해선 안 됐다”며 “가족을 위해 가까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총을 쏜 이유를 말했다.

올림픽경찰서는 CCTV에 담긴 용의자 인상착의와 주변 탐문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한인타운 성탄 시즌 시작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본격적인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6일 LA한인타운의 갤러리 아올림픽 지점에 대형 성탄 트리가 등장했다. 김상진 기자

우버, 3분기 매출 11% 증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올해 3분기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버는 지난 3분기 92억9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10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투자 지분에 대한 재평가분이 포함되긴 했지만 1년 전 0.61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시장 전망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금융정보업체 LSEG(옛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예상 매출은 95억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12달러였다.

모빌리티 부문 매출(50억7천만 달러)이 배달(달리버리) 부문 매출(29억3천만 달러)을 크게 앞섰다. 화물 부문 매출은 12억8천만 달러에 그쳤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3분기 실적에 매우 호조를 보였다”며 “총계약이 늘어나고 여행 및 월간 활성 플랫폼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소매에서 서비스로 지출을 전환함에 따라 우리

플랫폼이 지속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며 “거시 환경이 좋은 그렇지 않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분기 우버의 월간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는 1억4천2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우버는 4분기 총 예약액은 365억 달러~375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분석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전망한 시장 예상치 365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스로샤히 CEO는 또 우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버가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며 중동 지역이 우버 총예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라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무
료
상
담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탈북민 송환 중단… 국제사회가 중국 설득”

북한 주민 피폭 문제도 다뤄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국제사회가 중국을 더 설득해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대사는 지난 7일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중국 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송환된 탈북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사는 과거에는 중국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이 오히려 탈북민을 더 송환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 사안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가 “딜레마”라고 토론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인권 문제를 적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난 7일 워싱턴DC의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적으로 제기하면 중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서방과 가치를 완전

히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중간 지대 국가들을 접촉해 중국을 설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외에도 다른 유사 입장국들이 성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또 북한의 핵실험 등 핵무기 개발 활동이 과학자와 핵실험장 인근 주민 등을 “심각한 방사능 위험”에 노출해 또 다른 인권 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실험과 북한 주민의 방사선 노출 간 인과관계를 연구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씻조각 위험” 타이슨 치킨너깃 리콜

3만파운드 공룡모양 제품

금속 조각 포함 위험에 공룡 모양 치킨너깃(사진)이 리콜된다.

연방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에 따르면, 대형 식품 및 육류 가공 업체 타이슨이 금속 조각 포함으로 인한 부상 위험에 공룡 모양 치킨너깃 2만9819파운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된 제품은 ‘타이슨 풀리 쿼드 펀너깃츠 브레디드 웨이프드 치킨 패티스(29온스)’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4일까지다.

제품 일련 번호는 2483BRV0207, 2483BRV0208, 2483BRV0209 및 2483BRV0210이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패키지 뒷면에 ‘P-7211’라는 번호가 표시돼 있다. 정하은 기자



더 강력해진 신형 AI 나온다

“책 한 권 요약도 가능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6일 한층 강력해진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개발자 회의(OpenAI DevDay)를 열고 최신 AI 모델인 ‘GPT-4 터보(Turbo)’를 소개했다.

이 모델은 우선 2023년 4월까지의 정보가 업데이트됨으로써 2022년 1월까지 업데이트됐던 이전 GPT-4 버전보다 최신 답변을 제공한다.

또 GPT-4 터보에서는 또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입력할 수 있다. 이전 버전에서는 약 3000단어까지만 입력할 수 있었지만, GPT-

4 터보는 최대 300페이지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책 전체를 요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GPT-

4 터보는 최신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3’(DALL-E 3)의 이미지와 텍스트-음성 변환을 지원한다. ‘달리 3’는 챗GPT와 통합한 이미지 생성 AI다. 이 사용자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할 필요 없이 챗GPT와 문답을 통해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챗GPT가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이를 토대로 ‘달리 3’가 이미지를 생성한다.

오픈AI는 GPT-4 터보가 최신 모델이지만,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전 버전의 평균 2.75분의 1(36%)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현재 개발자를 위한 프리뷰 버전으로 GPT-4 터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주 내에 모든 이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칸 영화제 참석 스타와 추억…50만달러

니만 마커스 판타지 선물 판매

고급 소매판매업체 니만 마커스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가의 크리스마스 판타지 선물 리스트를 공개했다.

니만 마커스가 올해로 64번째 출간한 ‘크리스마스 북’에 오른 선물은 대부분은 20만달러 이상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프리미어 좌석과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의 내년 여름 시즌 티켓, 예술단의 리허설 공연 관람권, 출연자와 똑같은 분장과 의상착용 체험 등 이들과의 여



행 일정이 포함된 선물권 가격이 19만 5천달러로 가장 싸다.

월드디즈니 애니메이션 체험 상품권은 51만달러로, 디즈니 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신과 어울리는 변주된 캐릭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애니메이션에 입힐 수도 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미국 국가

대표 선수들과 현지 출정식 만찬 행사에 초대받고 국가대표 동선을 함께하는 선물권은 21만달러다.

디트로이트의 캐딜락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캐딜락 카먼 셀레스트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방문자의 캐릭터에 맞춰진 단 한대의 한정판 캐딜락 카먼 셀레스트크를 선물받는 패키지 상품이 97만5천달러에 나왔다.

이탈리아 밀라노 3박4일 여행상품은 각종 명품 공장을 방문하고 미식 탐험을 곁들이면서 10만달러짜리 이탈리아 가구 교환권을 받게 되는데, 38만달러에 출시됐다.

인도네시아 호화판 요트 관광 상품은 48만5천달러인데, 니만 마커스의

보석 상품 교환권(15만달러)과 비치 파티 참가권을 선물로 받게 된다.

칸 영화제에 참석해 레드카펫 걷기 체험과 각종 영화관람 행사 초대권이 포함된 선물은 50만달러에 나왔다.

1926년 16페이지의 소책자로 처음 나온 니만마커스 크리스마스 북은 애초 고객들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였으나 나중에는 고급 선물 패키지를 소개하는 책자로 변했다.

니만 마커스는 모든 판타지 선물 판매 수익금 전액을 메이커워시 파운데이션과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 레로루스 파운데이션 등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80불 대화형 로봇개 인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화형 로봇개가 인기다.

KTLA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완구회사 와우위사의 대화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80달러짜리 도그-이(Dog-E:사진)가 잘 판매되고 있다.

도그-이는 터치, 동작, 음성에 반응하며 달리기와 꼬리 흔들기는 물론 200개 이상의 소리도 낸다. 꼬리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여준다. 내장된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이 제품은 아마존, 타깃, 월마트,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등에서 판매 중이다. 일부에선 69달러에 할인 구매도 가능하다.

정하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고금리·경쟁 가열 ... 한인은행 예금 가뭄

예대출 90%대, 적정선 넘어 수익성 악화 원인될까 우려

고금리 영업 환경 속에서 한인은행들이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지가 남가주에 본점을 둔뱅크 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등 한인은행 6곳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2023년 3분기 실적 보고서(call report)를 분석한 결과, 대출을 예금으로 나는 비율인 예대출은 90~98%대에 이르렀다. <표 참조>

지난 3분기 한인은행 중 PCB뱅크의 예대출은 99%에 육박하는 98.8%였다. 오픈뱅크(96.3%)와 한미은행(96.2%)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US메트로뱅크는 예대출이 92.7%, CBB뱅크는 91.7%, 뱅크 오브호프는 90.8%로 집계됐다. 은행 6곳 모두 예대출이 90%를 초과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80~90%의 예대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예대출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의 재무건성도 있지만, 예금고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예대출이 높으면 은행의 수입원 창출 창구인 대출 영업에 제약이 생기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충분한 예금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급격히 오른 금리 탓에 한인은

한인은행 2023년 3분기 예대출 (단위: \$1,000)

은행명	자산	예금	대출	예대출(%)
뱅크 오브호프	20,070,938	15,772,186	14,325,695	90.8
한미은행	7,319,729	6,268,788	6,032,552	96.2
PCB뱅크	2,567,903	2,200,189	2,174,298	98.8
오픈뱅크	2,142,459	1,826,854	1,759,525	96.3
CBB뱅크	1,859,299	1,549,752	1,420,585	91.7
US메트로뱅크	1,198,944	1,036,775	960,638	92.7
총합	35,159,272	28,654,544	26,673,293	93.1

자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행들은 예금 확보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비한인 은행들도 예금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중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은행들보다 높은 이자율(APY)의 세이빙 계좌와 CD(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상품을 출시하고 소비자들 공략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은행은 5% 후반대 이자율의 CD상품도 내놨다. 한인은행들도 예금고 확보에 적극적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예전만 못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을 향상하려면 예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은행마다 공격적으로 예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금 이자는 은행의 입장에서 비용이다. 높은 이자율로 예금을 확보하다 보니 은행의 예금 관련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자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비싼 이자로 예금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경비절감을 통해 비이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한인은행들의 예금 유치 경쟁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훈식 기자

의료 부채 제외, 크레딧 점수 상승

신용평가사, 작년 7월부터 평균점수 30점 상승 615로

신용평가 업체들이 일부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외하면서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반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심 상태의 의료 부채를 가진 성인 비율은 지난 8월 5%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또 2021년 8월의 14%와 비교해도 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주요 신용평

가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일정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 기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온 등은 작년 7월부터 부채로 떠안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 집계에서 뺐다.

이들은 지난 4월에는 500달러 이하도 리포트에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크레딧점수 평가 방법인 밴티지스코어 역시 2022년 8월에 빚 보유 기간 및 금액과 관계 없이 의료 부채를 크레딧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어반인스티튜트의 브레노 브라가 이코노미스트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조치로 전국 2700만 명에 달하는 의료 부채를 보유한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는 지난해 평균 585점에서 615점으로 30점이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평균 점수가 서브프라임 등급(600점 미만)에서 탈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임금상장으로 의료 부채가 생기면 크레딧점수가 크게 떨어져 아파트 렌트, 자동차 구매, 대출 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



뉴진스와 함께 빼빼로데이 시몬마켓이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맞아 빼빼로 전 제품을 최고 4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롯데월드타워가 빼빼로 브랜드의 공식 글로벌 엠베서더로 그룹 뉴진스를 발탁하면서 시몬마켓 매장은 별도 색션을 마련했다. 빅팩 6종은 각각 6.99달러, 5종은 3.99달러, 한 팩 99센트에 대폭 할인 판매 중이다. 김상진 기자

연준 매파 위원, “인플레이션 선언 아직 일러”

닐 카시카리(사진)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은행(Fed·연준) 인사 가운데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카시카리 총재는 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기에 앞서 더 많은 지표를 확보하고 경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시카리는 지난 3개월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희망적인 지표들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니를 다시 병속에 넣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



은 지표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인 2%로 낮

추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심한 정도로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이어 “긴축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는 적절한 시간 내 목표치 2%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회복력이 있음을 입증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물가와 임금 관련 지표들을 감

안하면 인플레이션이 2%보다 높은 어느 곳에 고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동결했으며, 제롬 파월 의장이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또 일부 연준 인사들은 지난 몇 달간 국제 수익률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건 늘어 시장 전망을 크게 밀도는 등 노동시장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카시카리 총재는 그러나 당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1297원 ... 3개월 내 최저

6일(한국시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5.1원 급락한 1297.3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일(1283.80원) 이후 3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이날 낙폭도 지난 3월 23일(-29.4원) 이후 가장 컸다.

개장 전부터 고용지표 영향으로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 고용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뉴욕 증시 반등과 국제 유가 하락도 환율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원달러 환율이 향후 추가 하락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환율 급락세 속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 수요 유입 등 지속적인 매수세에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바이든,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 부정적”

“이스라엘과 계속 대화할 것”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대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 발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전반적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미측 첫 반응이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을 통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분쟁 없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

는 입장 하에, 하마스 축출이라는 전쟁 목표가 달성되면 팔레스타인인, 즉 하마스 이외의 다른 팔레스타인 정당 등에 가자지구의 통치를 맡기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진다’는 네타냐후 총리 발언은 하마스를 대체할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통치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 과도적으로 가자지구 치안을 관리하며 하마스의 재발호를 막겠다는 취지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미국이 경계한 ‘가자지구 재점령’과 다름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제3후보 뛰어 들면 판도 바뀌는 경합주 대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 속하지 않은 제3 후보가 뛰어 들 경우 판세가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6개 주 3천662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사진) 후보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케네디 후보는 24%의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5%, 조 바이든 대통령은 33%의 지지를 기록했다.

민주당·공화당 후보의 맞대결이 벌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 다만 다자대결의 경우 미국 대선의 핵심인 주별 승패가 뒤바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 대결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개 경합 주 중 네바다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케네디 후보가 포함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주는 네바다와 조지아, 미시건 등 3개 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대결의 경우 위스콘신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섰지만, 케네디 후보가 출마한다면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의 지지율이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기록했다.

케네디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



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상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4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케네디 후보 지지자는 39%였다.

제3 후보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19%나 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나 실형 판결을 받는다면 지지 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꾸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6%로 나타났다. 근소한 지지율 변화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 주의 선거 판도를 감안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미군 불법 개인정보, 온라인서 팔린다”

‘데이터 중개사업’ 280조원 규모

전현직 미군 다수의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 해외 기업 등에 판매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6일 보도했다. 듀크대학교 연구진이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는 전현직 미군의 개인정보가 1인당 12~32센트에 팔리고 있다.

이른바 ‘데이터 중개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특정 미군의 이름, 인종, 주소는 물론 건강 상태, 금융 정보, 종교, 정치 성향 등까지 수집한 뒤 이를 웹사

이트에 올려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들 데이터 중개인 규모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공공 기록, 신용보고기관 등에 올라온 정보를 통해 매년 군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모은다고 한다.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패키지로 묶여 마케팅 담당자나 관련 회사 등에 주로 판매된다. 해외 기업도 손쉽게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데이터 중개사업 규모는 2천14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망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큰 타격을 줬다”며 “우리는 폭력과 증오가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사건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일요일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이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의 전황이 격화함에 따라 양측 간 긴장도 점차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머리를 다쳐 바닥에 누워있는 케슬러를 발견했고, 한 목격자는 그가 반대 측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보안관실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증오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용의자가 누구인지, 몸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 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케슬러와 함께 있었던 한 목격자는 지역 방송 ABC7 인터뷰에서 “그들(폴 케슬러와 가해자)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폴을 때렸고 폴이 쓰러졌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사우전드 오크스는 로스앤젤레스(LA)의 서북쪽에 인접한 도시다. 광역 LA 유대인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

60대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와 다투다 사망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가까워서 대처하던 중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해 60대 유대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5일 오후 카운티 내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69세 남성 폴 케슬러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카운티 검사관실은 부검을 끝낸 뒤 사인을 둔기에 의한 머리 부상, 즉 타살로 결론지었다.

보안관실은 사건 당일 오후 3시 20분께 대로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현장의 교차로에서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인근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폭격 피해 도망치는 어린이들

지난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어린이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이 중 4100명 이상이 어린이라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 유엔 등은 ‘즉시 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영아패션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홀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미국 경고에도... 이스라엘, 가자지구 직접 통치 시사 초강수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점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할 경우 2005년 9월 이후 18년 만의 일이 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 방식을 묻는 말에 “이스라엘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걸쳐 전체적인 안보 책임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그런(직접 통치) 책임을 지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며 “우리가 안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터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하마스 테러였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는 그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선 중동 국가들



지난 6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상공에 섬광탄을 쏘아올려 어둠을 밝히고 있다. (EPA=연합뉴스)

을 자극해 ‘5차 중동전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하마스를 궤멸시키기 위해 가자시티 지상 작전을 앞두고 있다. 하마스를 공존이 불가능한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불사하

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하마스 축출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BS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미국

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원칙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지난 5일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안보 책임을 갖지 않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가 일시적 교전 중단을 요청했지만, “휴전은 없다”며 지상군 투입에 앞서 가자지구 내 450곳을 포격했다.

다만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자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술적 교전 중단’ 가능성을 논의한 뒤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반입과 우리 인질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작전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과 일부 서방국가는 일시적 교전 중단을 넘어 ‘즉시 휴전’ 필요성까

지 제기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휴전을 촉구했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도 X(옛 트위터)에 “전쟁으로 10분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세계보건기구(WHO)·국제이주기구(IOM)·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도 공동성명으로 분쟁 중단을 요구했다. 스페인·프랑스는 휴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한다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가 심해 현실적이지 않고, 특히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온 미국의 의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자 점령 언급은 정치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구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강태하·문상혁 기자

중국 상무부가 7일 전략물자인 희토류 금속 73종을 수출 보고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갈륨·게르마늄, 10월 흑연 수출을 통제했던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원유, 철광석, 구리 원석, 탄산칼륨 비료 등 수입 면허가 필요한 제품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별크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제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업자는 원산지, 계약 체결일, 수량, 선적 데이터 및 도착 시간 등 실시간 보고서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바이든

중국 “희토류 73종 수출 보고 의무화”... 미·중 정상회담 전 기선제압?

이날 발표된 규정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2년간 지속한다. 앞서 중국은 콩·유채유·분유·돼지고기·쇠고기·설탕 등 14개 수입 품목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수출 신고 대상 품목은 희토류에 한정했다. 중국은 군사·재생 에너지·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희토류 생산 세계 1위 국가다.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잠재적 보복 수단으로 희토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희토류

산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리 총리는 회의에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산 자원”이라며 “차세대 친환경, 고효율 채굴·제련 기술을 연구개발해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 금속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면서 희토류를 외교 분쟁의 무기로 사용한 선례가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양자회담이 유력

한 가운데 나왔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향후 희토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내외 여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두 개의 전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중

국 제조업 위축, 부동산 위기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미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전면적인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은 전망이다. 제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6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우리 행정부의 전략적 최우선 순위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보호로, 이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핵심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엘런 장관은 오는 9~10일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허리핑 국무원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한다.

워싱턴=베이징·김형구·신경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 출석한 뒤 휴정시간에 법정을 나서며 입에 지퍼를 채우는 손동작을 했다. (AP=뉴시스)

트럼프 “법원이 사기 치고 있다” 판사 “말 짧게 하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자산 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 출석해 과거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뤄진 가치 평가 과정에 본인이 일부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회

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재무제표 기록을) 내가 봤고, 어떤 경우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해튼에 있는 부동산 ‘체른스프링스’의 기존 평가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다”며 재무제표상 가치를 낮췄다고 시인했다. NYT는 이런 진술이 재무제표 작성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향해 “이것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맡은 아서 엔고론 판사에 대해선 “날 사기꾼이라고 불렀다”며 “사기는 내가 아니라 법원이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장광설이 이어지자 발언을 짧게 해달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다. 이어 “이것은 정치집회

가 아니다” “남비할 시간이 없다”며 발언을 자제시켰다. 독백에 가까운 진술 일부는 기록 삭제될 지시했다.

이날 재판은 트럼프가 받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 민사 사건이다. 지난해 9월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가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빌딩·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약 3조원) 부풀려 보고했다며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유진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4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4년에는 메디케어 플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Montgomery, Howard, Prince George County 등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새로운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

Northern Virginia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800-232-5014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3년 10월 15일~12월 7일

<p>애난데일</p> <p>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p>	<p>센터빌</p> <p>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p>	<p>엘리콧시티</p> <p>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p>
---	---	---

*** 메디케어 / 건강보험 사무직원 구합니다.**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973-5933



Elizabeth Kim
703-642-7578



박종희
703-642-0305



Michelle Kim
703-337-0910

25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	----------------------------	---------------------------------	--

공수처, 올해 민주당발 수사 19건 ... 일각선 “하청기관이나”

미완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 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한 달째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소환조사 시기를 둘러싸고 옥신각신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노린 표적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겠다고며 출범시킨 조직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중구에 있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압수수색에 수사 인력의 3분의 2 수준인 40여 명을 동원했고, 곧이어 감사위원 6명 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들은 아무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수사는 내년 1월 2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진욱 처장 체제의 공수처엔 ‘마지막 승부’인 셈이지만 검경에선 “3년간 반복해 온 지지부진의 완결판”(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감사)이라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 구성원들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출범 후 약 2년10개월간 성과 부진, 중립성 논란, 리더십 부재 등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에 가깝다. 그동안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6907건으로, 이 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8건(0.1%), 구속영장 발부는 0건에 그쳤다.

그나마 직접 기소한 8건은 동일 사건의 여러 혐의가 중복된 것으로 사건 수로만 따지면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고발사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다.

공수처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고발로 시작된 감사원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박하다. 조은천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



2021년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장진영 기자

위원회 회의에서 “처장 임기 내 이 사건(감사원 표적 감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엔 이미 회의론이 깔리고 있다. 임명을 원한 공수처 관계자는 “민주당이 표적감사로 감사원을 고발한 건 이미 1년도 넘는 지난해 8월”이라며 “국정감사(10월 19일) 전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사한 티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9월 압수수색 등을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는 시선이다. 또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김 처장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돌연 강제수사가 활발해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며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김 처장이 정치권에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진욱 후임 인선 작업 시작

감사원 수사 상황에 대해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난이도가 높은 수사일 수록 압수물 포렌식→실무자 조사→고위층 소환의 단계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게 순리인데 첫 압수수색 한 달 만에 핵심 피의자인 유 사무총장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매끄럽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공수처 최초의 자체 인지 사건이었던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결과는 참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함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수사는 장기 표류중이다.

이 외에도 김학익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이규원 검사의 ‘윤중현(성접대 당사자)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을 넘겨받고도 수사 9개월 만인 2021년 12월 검찰

에 다시 돌려 준 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2번이나 검찰에 넘긴 일 등은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이유에 물음표를 단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이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며 “(민주당 사건을) 지난해 7건, 올해 19건을 접수했다. 무슨 원청과 하청 기관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중립성 논란은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 절정에 달했다. ▶고발사주 사건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은 모두 대통령 선거 출마설이 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였다. 그러나 대선을 전후로 이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현재도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수원지검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부실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작년 예산 197억 중 54억 쓰지도 못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숙함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2월 발생한 전직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의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가 이미 확정된 사건을 공수처가 별도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공수처는 피의자인 윤모 전 검사를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2022년 7월과 9월 2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범죄의 구성요건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전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 및 수사기록 등을 분실한 후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분실한 사건의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복사한 고소장이 원본과 내용적으로 다를 경우 성립하는데 재판 과정에선 윤 전 검사가 고소장을 복사만 했을 뿐 개작(改作)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진욱 처장은 성과 부진과 관련해 국감에서 총 6번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국회에 ▶수사·행정인력의 절대적 부족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임기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범위 등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간 누적된 공수처의 수사 부진은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1년 공수처 예산은 예비비 포함 232억1800만원 중 92억7200만원(39.9%)이, 지난해엔 197억770만원 중 54억1100만원(27.4%)이 불용됐다. 수사 예산 역시 2년 연속 절반도 미처 쓰지 못했다. 그럼에도 공수처에 배정된 2023년도 예산은 176억8300만원, 내년도 예산안은 202억400만원에 이른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김 처장 후임자 인선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7명)을 마무리했다. 추천위는 8일 위촉식 이후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허정원·김정민·박현준·김민중 기자

와사비에 이런 놀라운 효능 “노인들 기억력 좋아졌다”

식재료 와사비가 노인들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와사비를 이용한 건강 보충제도 만들어지고 있다. 와사비에는 6-메틸살피놀 헥스빌 이소티오시아네이트(6-MSITC)라는 항염증 성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 하루카 교수 연구팀은 와사비의 인지능력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 72명(60~80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질병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노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6-MSITC 0.8mg 함유) 또는 위약(placebo)을 12주 동안 매일 자기 전에 먹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험 전후에 광범위한 인지기능(집행기능, 일화기억, 단기기억, 작업기억, 주의력 등) 테스트를 시행했다. 일화기억은 본인이 겪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다. 작업 기억은 뇌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는 능력, 즉 단기 기억을 말한다. 그 결과 와사비 그룹은 삽화기억, 작업기억 등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모두 실험 전보다 좋아졌다. 특히 이름과 얼굴을 연결 짓는 등 노인들이

대개 어려워하는 연관 테스트(association test) 성적이 개선됐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인지기능은 실험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위약을 먹은 대조군 노인들은 기억력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와사비에 들어있는 6-MSITC 성분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최대의 오픈 액세스 학술 출판사인 MDPD(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의 온라인 영양학 전문지 ‘영양소’(Nutrients) 최신호에 실렸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심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메디케어 보험

***2024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 10/15~12/7 플랜 비교와 신청 도와 드립니다.**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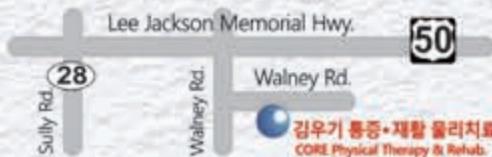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노조개혁 2라운드 유령조합원 잡는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둘러싼 노동계와의 씨름에서 판정승을 거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조직 투명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노조 조합원 수가 자진신고 방식으로 집계되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노조’를 잡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각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노조 조직률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통계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노조들의 ‘셀프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 규모

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노조 현황이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노조가 신고하는 조합원 수 현황을 사업장 단위까지 세분화해 받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도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조는 사업(장)별로 구분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규칙상 서식(노조 현황 정기통보서)이 미흡한 탓에 유명 무실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개정된 서식은 ‘단위노조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을 추가하고 ▶수준(단계)별 산하조직 명칭 ▶사업(장)명 ▶조합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구성됐다. 예컨대 ‘급속노

정부, 노조 조직도 투명화 추진

노조 셀프신고, 인원 뺄튀기 가능성 미신고 1126곳 중 780곳 실제 없어 회계 투명화 이어 업장별 인원 확인 정부 입법예고, 노동계 “자율성 침해” 조 울산지부’ 조합원 수뿐 아니라 울산지부에 속한 현대제철지회·삼성전자지회 비스울산지회 등 각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기보고식 신고의 한계로 노조 현황 파악에 있어 다양한 오류가 발생해 왔다”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직접 노조의 조직 현황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고용부가 발주한 ‘초기업단위 노조 조직 현황 실태조사’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정부는 ▶초기업 단위별 상급단체 현황 ▶사업(장)별 조

직현황 및 조합원 수 ▶기업규모별 조직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노조 운영체계 파악에 나선다.

노조 조직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같이 정부 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비율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등 노동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고용부가 올 초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1126곳을 전수조사해 보니 780곳이 실제가 없는 노조로 드러났다.

실리적인 이유도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타임오프 시간이 주어지는데, 만일 조합원 수가 부풀려졌다면 과도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최근 고용부가 타임오프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조합원 수를 초과해 타임오프를 오남용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는 “(복수노조에선) 내부 투표가 결렬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고, 노조 조합비 수입과도 직결되는 등 조직 현황은 정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한 축인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된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105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말 참여 노조는 30여 곳에 불과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회계공시도 자산·부채·수입·지출 등 재정 현황뿐 아니라 조합원 수 등을 같이 기재해야 한다.

한편 노동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자칫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종=나상현 기자**

‘1일 천하’였다.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로 급등했던 주식시장이 7일 급락했다.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코스피는 2500선을 다시 내렸다. 코스닥은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됐다. 전날 급락에 따른 매수 사이드카와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공매도 금지’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2차 전자주도 에코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갑자기 꺼내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시장은 냉담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은 전날보다 약 2.33%(58.41포인트) 떨어진 2443.96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순매도 영향이다. 전날 5.66%(134.03포인트)의 상승이 무색하게 쉽게 무너졌다.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였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반등을 예상한 주식 매입) 효과도 곧 힘을 잃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단기 숏커버링은 지난 6월 말

134P 급등 뒤 58P 급락... 총선 앞두고 바꾼 정책에 증시 혼란

(코스피 공매도금지 첫날) (둘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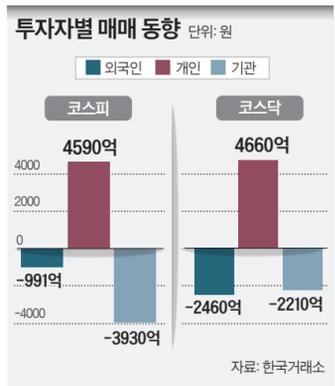
서울 중구 하나은행 관계자가 이날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 들어온 것 같고, 앞으로 2~3일 내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코스피가 급격하게 오르고 환율이 내리니(원화가치 상승) 외국인 입장에서 빨리 숏커버링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 영향력은 2주를 정점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자금을 주로 운용하

는 페트라자산운용의 이찬형 부사장은 “예컨대 삼성전자를 사면서 내릴 때를 대비해 SK하이닉스는 숏포지션(매도)으로 잡는데, 이게 불가능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면 곧바로 팔고 나가버릴 테니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와 공매도 금지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금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는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할지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프로그램 매매 지표상 외국인 (시장의 흐름에 따르는) 패시브 자금은 줄어든 모습”이라며 “향후 흐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형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헤지공

매도를 통한 위험 회피)를 전략으로 가져가는 외국 펀드는 한국 시장을 아예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정 세력의 주가 조작 우려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로 악재성 정보의 반영이 늦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부 세력의 의도적 주가 띄우기가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저하도 문제다. 특히 공매도 금지는 정부가 수년째 공들이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다.

본격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지만 가능할지는 아직 물음표다. 그간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관·외국인 공매도 담보비율·상환 기간 제한 ▶공매도 실시간 전산화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현실적 구현이 어렵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김 위원장도 실시간 전산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연주·김남준 기자

‘부부 장관’ 2호 나왔다... 정경화·임강규 준장



2014년 첫 장관 부부 이어 9년만

장군 이래 두 번째 ‘부부 장관’이 탄생했다. 2014년 첫 사례 이후 9년 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6일 이취직을 앞둔 정경화(38)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정경화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무처장(간

사 32기·여)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며 ‘부부 장관’이 됐다. 정경화 준장의 배우자는 임강규 국군지휘통신사령관(준장·육사 48기)이다.

정 준장은 육군본부 의무실 예방의무과장, 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생도대장을 거쳐 의사사 예방의무처장으로 근무해오다 이번 인사에서 준장 진급(임기제)과 함께 간호사관학교장에 보직됐다.

우리 군의 ‘부부 장관’은 2014년 후반 기장성 인사당시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김귀옥 예비역 육군 준장(여군 31기)과 그 배우자 이형석 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41기)이 최하다. 김귀옥 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관리처장을 끝으로 2016년 전역했고, 이형석 소장은 제53보병사단장에 이어 합동참모본부 신연합 방위체제 추진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9

년 예편했다.

한편 올 하반기 장성 인사에선 차종희 육군본부 예산운영과장(여군 39기)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 모두 2명의 여군 장관이 탄생했다. 차종희 준장은 앞으로 육군본부 예산차장으로 일하게 된다. 아직 공군이나 해군·해병대에서는 부부가 같이 장성급 장교가 된 사례가 없다. **이지영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인요한 만난 김종인 “처방은 잘했지만, 환자가 약을 먹어야”

(국민의힘)

“환자는 국민의힘, 대통령에 달려” 인, 이준석 신당 진화하려 찾아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자신을 찾아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환자는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인 위원장으로서 ‘이준석 신당론’을 진화하려고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인 김 전 위원장을 찾았다가 오히려 쓴소리만 들은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부산 토코콘서트 현장을 찾은 인 위원장에게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45분간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이 ‘당신 의사 아니냐. 처방은 잘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며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15분 뒤 사무실을 나선 김 전 위원장이 “환자는 국민의힘이다. 강서구

창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표심을 잘 인식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의 인식이 잘못된 것 같다”며 발언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인 위원장이 혁신안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에 순응할지, 않을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다. 약을 먹이려면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천운·영남 중진 용퇴론·힘지 출마론’과 관련해 “우리나라 역사상, 의원 스스로 공천 포기한 사례가 서너 건밖에 없다. 그 사람한테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와 같은데, 인생 걸고 해오던 정치를 그만두겠냐”면서 “위원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는지를 인 위원장에게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만 이준석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신당은 국민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김 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약 40분간 회담했다. [뉴스1]

야겠다’고 판단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시계적으로 국민이 정치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의 만남 직전 페이스북에 “집권 초기 1년 반을 당권 장악과 대장동 공방전으로 허비한 상황에서 지금 정책 이야기해 봐야 ‘공매도 1일 천하’ 같은 일만 반복될 것”이라며

“여든다섯(김 전 위원장) 어르신 의 고 민을 85년생이 힘 있는 데까지 정치의 화두로 올려보겠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조언을 들었는데 신당 창당의 각오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신당과 중진 협치론이 맞물리면서 여당 내에선 위기감도 나왔다. 여권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너무 일찍 수도권 힘지 출마 권고안을 꺼내면서 대상자를 몰아세운 감이 있다”며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 국면에서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자칫 빠져나가 신당이나 제3지대로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보궐선거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했다”며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으로 안다”고 공개했다. 김 대표가 힘지 출마나 불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효성·전민구 기자

이상민, 양향자·금태섭과 기자회견... 이준석 신당 합류엔 “한달 내 거취결정”

비명계 핵심들은 이준석에 거리

‘12월 신당설’을 불붙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소통’을 언급하자 해당 의원들이 신당 합류설을 일축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자기 우군이 없으니 밖에서 말장난을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누구 한 명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왜 쫓아가냐”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도 “우리는 진보고 이준석은 보수인데, 물과 불이 같이 섞여서 되겠느냐”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창당 문제와 관련해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민주당 비명계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10월 중순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과 만난 사실이 밝혀지면 서 정치권에선 ‘이준석 신당’의 외연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증폭됐다.

하지만 설훈·이원욱·김종민·박용진·조용천 의원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이준석 신당’과 거리를 뒀다. 이 중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준석과 통화한 적도 없고, 인연도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신당을 만들면 따로 해야지 왜 이준석과 같이하느냐”고 말했다. 조용천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두 달 전쯤 인사차 통화한 사실은 있다”며 “(정치

가) 아무리 생물이라도 간극이 매우 넓다. (신당 합류는) 썩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이상민 의원은 이날 제3차대 신당을 추진하는 양향자 의원, 금태섭·정태근 전 의원,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국민 사기극인 품수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여야에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제1당인 민주당의 책

임이 크다”며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 논의에 찬성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양향자)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별도로 라디오에서 “신당 합류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 달 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보현·김정재 기자

직원이 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 미래에셋, 검찰 고발

“직원 일탈 자체 감사로 적발·해고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외 업체에 보낸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A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개발 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 달러(약 2800억원)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해당 대출계약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A이사가 자체적

으로 꾸민 위조 문서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내부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받았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민간조정 및 중재 서비스 업체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회사에 관련된 적법한 내부절

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투자은행(IB) 부서에서 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 기본에 해당하는 업무다. 계약서는 협상과 로펌의 법률 자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체결된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원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염지현 기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구조조정 불가피”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박 후보자는 “(KBS)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사 재직 당시 받은 외부 자문료(1500만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라이브’에 대한 조치도 시사했다.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신상 발언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한때 파행했다. [뉴스1]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클럽턴 싱글홈	우드브릿지 타운홈
\$985,000	\$680,000	\$1,350,000	\$400,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 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 많이함.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어묵 안 팔겠다” 하소연에 ... 식당 ‘종이컵 금지’ 없던 일로

정부, 일회용품 규제 대폭 완화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도 제외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고려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푸드트럭 등에서 지금까지 종이컵을 사용해 어묵 국물을 먹을 수 있다. [뉴시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로 보름가량 앞두고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종이컵은 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서라고 관리 방안이 변경된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24일부터 식품접객업자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

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은 비닐봉지를 공짜로 나눠줘선 안 된다. 2년 전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조치의 계도기간이 23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뺐 건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공개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봉어빵을 파는 A씨는 “다가오는 겨울부터 어묵은 팔지 않겠다. 작은 푸드트럭에 다회용컵을 많이 쌓아둘 수도 없고, 세척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봉어빵만 팔 계획”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일부 국가가 종이컵 사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현재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

점 등은 주로 종이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데다 금세 녹록해져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까지 나오는 등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임 차관은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닐봉지 규제도 적극적인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장바구니·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로 앞둔 시점에 규제를 반복하는 건 일회용품 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3%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종이컵이 연간 248억 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

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제로로 된 회수 시스템이 없는 종이컵은 재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 사용은 또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회용컵을 도입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준비해온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계도기간(종료)에 맞춰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전원필 기자**

10~20대 심장질환 4만3368명 ... 4년새 31% 급증

(지난해)

전체 심장환자 20% 증가

10~20대 젊은층 심장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2022년 사이 환자가 30%나 늘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2018~2022년 심장질환 진료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8년 152만9537명에서 지난해 183만3320명으로 19.9% 증가했다. 진료비는 이 기간 1조8329

억원에서 2조5391억원으로 38.5% 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0~20대 젊은층 환자의 급증이 다른 연령대 환자 증가보다 눈에 띄었다.

20대 환자는 2018년 2만2802명에서 지난해 3만215명으로 32.5% 늘었다. 20대 1만 명 중 47명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이다. 10대 역시 같은 기간 환자 수가 1만210명에서 1만3153명으로 28.8% 늘었다. 10대는 1만 명당 28명이 환자라는 뜻이다.

하구자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심장질환 환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지만, 10~20대에서 환자 비율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며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허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적극적 진단으로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젊은층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한라산 상고대 ... 오늘 입동, 더 춥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된 7일 제주도 한라산 백담대에 상고대가 피어 있다. 절기상 입동(立冬)인 오늘(8일) 기온이 전날보다 2~5도 더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9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뉴시스]

고려대·KAIST 첨단연구 손 잡았다

고려대가 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대학은 의과학(임상의학)·수소·양자·첨단바이오·사이버보안 등 5개 분야에서 정보·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중장기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카이스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유혁 연구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이 참석했다. 카이스트에선 이광형 총장과 이균민 대외부총장, 김하일 의과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먼저 분야당 5명씩 총 25명의 교수를 선발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발된 교수들에게는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두 대학의 연구 인프라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매 학기 발표회 등 정기적인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혁 고려대 연구부총장은 “보통 업무협약은 말로만 하고 추상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은 구체적인 분야·인원·예산을 논의해 실질적인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두 대학은 그간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협력 성과도 이날 협약식에서 공유했다. ‘우울증 및 조울증 발생 예측 수리과학 모델 개발’, ‘단일 세포 전장 유전체 연구’, ‘심혈관 질환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왼쪽)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7일 의과학(임상의학)·수소·양자·첨단바이오·사이버보안 등 5개 분야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고려대학교]

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광학 이미징의 료기기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역항암제 부작용 예측’ 등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팬데믹·양극

화 등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난제는 한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두 대학 총장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맺어졌다. 김 총장과 이 총장은 8월부터 수시로 만나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세계적인 투자와 경쟁이 치열한 5개 분야(의과학·수소·양자·첨단바이오·사이버보안)를 우선 선정했다. 이들 분야는 현 정부가 과학기술이 안보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 기술’에도 포함됐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대학이 홀로 명문대라고 자부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며 “대학 간 네트워크가 곧 경쟁력인 시대”라

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협약을 맺은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는 조 단위 연구비가 들어간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대학 간 협력과 상호 보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보다 비대면 소통 수단이 발달해 물리적 거리가 있는 연구진들끼리 소통이 수월해진 것도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보화를 선도한 카이스트와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는 건학이념을 가진 민족 대학 고려대가 비전을 공유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동반 성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영근 기자**

Woo's Auto Repair Service
자동차 정비

엘리컷 BP가스 자동차 정비

신용과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컷 전문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서비스

- 스모그 체크
- 엔진 Diagnostics / 엔진튜닝
- ABS & Break 서비스
- A/C 서비스
- 컴퓨터 진단
- 머플러 / 타이어 및 휠 어라이먼트
- 타이밍 벨트 / Water Pump
- 익스프레스 오일체인지
- 트랜스미션 / 엑셀사프트
- 자동차 바디 및 글래스
- 라지에이터

T. 410-313-8039 **C. 443-831-6530**

8720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www.woosauto.com | yeonsikwoo@gmail.com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1월 HOT 리스팅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모 부근 새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꼭,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6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일렌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정성웅 보험

사업체 보험



여기 한번 보세요!

보험료 절약의 기회!

정성웅 보험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 사업체에 꼭 알맞은 보험을 자신있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사업체 중그로서리, 미용실, 세탁소, 이발소, 컨비니언 스토어, 사진관, 옷가게, 홀세일(식품/잡화/도매) 등 ...

현재 보험료에서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보험

업무용 차량 보험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건축업, HVAC, 컨트렉터, 식당, 그로서리, 세탁소...
업소용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업체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폭넓게 보상하는 보험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식당 보험료

같은 조건에 보험료 더 낼 이유 없다!!

업종	기존 보험료	할인된 보험료
식당	\$3,700	→ \$2,100
치킨가게	\$2,150	→ \$1,100
아침, 점심 델리	\$1,800	→ \$1,200
델리	\$1,300	→ \$700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표기된 금액은 실제 계약금액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703-825-2945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실 때,
영어 안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저희 직원과 연결 됩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우리말 바꾸기

‘님’일까, ‘임’일까?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갈솔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찰까/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

우리 가곡 ‘님이 오시는지’의 일부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저미는 곡으로 가사도 아름답다. 여기에서 ‘님’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구구절절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넘쳐 나는 것을 보면 ‘님’은 당연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님’은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돼 있다. ‘홍길동님’ ‘길동님’ 등처럼 사용한다. 또한 ‘님’은 ‘사장님’ ‘총장님’처럼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로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님이 오시는지’에서의 ‘님’은 위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게 없다. 왜 그럴까? 사모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님’이 아니라 ‘임’이기 때문이다. ‘님’은 ‘임’의 옛말(고어)이며, 지금은 사모하는 사람의 뜻으로는 ‘임’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정에 맞게 쓰려면 ‘임이 오시는지’로 표기해야 한다. 민중가요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도 1981년 작곡 당시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제목을 달았으나 최근에는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불리고 있다.

‘님의 노래’ ‘님을 향한 연가’에서의 ‘님’도 모두 ‘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재정칼럼

돈(Money)과 주식투자



이명덕
재정학 박사

“그것은 단지 돈일 뿐입니다. 돈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돈은 그림이 있는 종이일 뿐이다. 그것을 위해 서로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돈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과거에도 오늘날도 변함이 없고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주식시장 폭락으로 몸과 마음이 영망진장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주식 폭락은 어떠하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통제할 수도, 멈출 수도, 심지어 속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맞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면 틀리게 되면 비량으로 떨어집니다.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같은 비율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J.C. 캔디, 영화 ‘마진 콜’ 중에서

1989년 당시 미국은 부자 상위 1%가 전체 부(Wealth)의 23%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위 1%의 소유율이 32%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34년 전엔 하위 90%가 전체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31%로 떨어졌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해진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떠하냐? 현재(2023년 1분기) 상위 1%가 전체 주식시장의 53%를 점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상위

10%로 확대하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비율은 89%에 달한다. 부의 불균형이 극심해진 것이다.

한인이 사랑하는 부동산 소유는 어떠하냐? 부동산은 상위 1%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14%만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90%가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56%나 된다. 부자들의 부는 대부분 주식에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돈은 부동산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자 상위 10%는 개인 총자산의 70%를 가지고 있지만, 하위 90%는 미국 전체 부채(Liabilities)의 70%를 가지고 있다. 하위 90%가 지고 있는 빚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돈을 좋아한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반복한다. 필자 역시 지난 40년 돈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난 40년을 산 세

대는 ‘운이 역세게 좋았던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당시는 주택가격도 저렴하여 집주인이 되기 쉬웠고 대학에서 공부하며 일을 해서 학자금 마련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텍사스 대학 15학점 등록에 필요한 학비는 단 250달러에 불과했다. 기숙사 비용은 학교에서 일한 수입으로 낼 수 있었다.

1983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주식은 7930%, 채권은 1060%, 그리고 주택은 515%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각각 11.4%, 6.2%, 그리고 4.6%가 된다. 금융 역사상 이렇게 높은 비율로 상승한 적이 없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에 60%, 채권에 40%로 구성된 투자를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투자했어도 연평균 수익률은 14.5%다. 위험성이 훨씬 적은 채권에 40%나 투자했어도 거의 15%의 수익률이 나온 것이다. 1980년부터 2022년까지 60/40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 역시 9.7%다.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20%가 폭락했다. 2000년의 기술주 폭락,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으로도 폭락 경험을 했지만, 주식시장은 올랐다. 과거 주식시장을 보면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상승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꾸준히 투자해 모두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J네트워크

하마스 공격의 교훈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에 살다 보니 이웃에 각국 주재원이 많다. 지난주엔 아이의 반 친구 아빠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명은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또 한 명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었다.

마침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지상전을 본격화한 때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중동 분쟁으로 이어졌다. 파키스탄 아빠는 팔레스타인을 압박해 온 이스라엘을 비난했고, 튀르키예 아빠는 이 분쟁으로 자국 경제가 받을 타격을 걱정했다. 자국 앞바다에 항공모함 두 척을 가져다 놓은 미국에 불쾌해한다는 튀르키예 여론도 전했다.

한창 열을 올렸던 게 신경 쓰였는지, “아, 너는 한국에서 왔지?”라며 수위를 좀 낮추기도 했다. 모두 이슬람권 국가다 보니 이번 사안을 둘러싼 다른 각도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튀르키예 아빠는 사이 안 좋은 이웃과 맞대고 있던 마찬가지인데 중동에선 번번이 유혈 충돌이 일어난 반면, 한국 주변에선 그러지 않

았다고 비교했다.

대신 갈등을 관리하며 경쟁으로 바뀌,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So far)”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말이다.

#지난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돌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하마스 공격을 보며 얻은 교훈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이 합의 탓에 접경지역에서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이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정권마다 대북정책에 온도 차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의도인지, 부추기려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 극우 정당과 연정을 했다. 그 당대표를 안보장관으로까지 삼았다. 신임 안보장관은 군인을 대동해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를 방문하는 기회를 보였고, 결국 아랍권을 자국했다.

그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공격이 터지면서 오히려 한숨 돌리게 됐다.

일단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말이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엔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인력이 대거 군에 소집되면서 잘나가던 이스라엘 경제도 올 하반기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다. 신 장관이 얻었다는 교훈이 이런 네타냐후식 정국 돌파법은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튀르키예 아빠가 부러워했던 관리와 경쟁으로 이어 온 한반도 평화는 언제든 ‘지금까지는’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안보는 나의 제1 사명 ... 통진당 해산 타협할 수 없었다



박근혜 회고록 (2)
통합진보당 해산

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였다. 이들은 통신·유류 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까지 준비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13석을 가진 제3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되레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나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는 '추정된다'는 식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려를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계(NL),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PD), 시민사회·노동계 등이 결합해 2011년 12월 만든 정당이었다.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성적을 거뒀지만, 선거 직후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당내 주류 정파가 중복 노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석기 '보좌관=일꾼' 북한식 용어 써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었다. 이 조직의 리더였던 이 의원은 기존 진보단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공개 석상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와 같은 발언을 거리낌없이 하는 인사였다. 기자들과 자신의 보좌관을 '일꾼'이라는 북한식 용어로 부를 정도로 북한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분단국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안보를 뿌리부터 흔드는 세력까지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정치인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방·



201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대선 TV토론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근혜(왼쪽) 대선 후보와 통진당 이정희 후보. [중앙포토]

외교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자료를 열람할 권리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확보한 자료가 북한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2012년 총선 직후부터 경기동부연합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파문이 확산하던 2012년 6월 나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퇴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자적심사를 통한 제명'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유아무야 넘어갔다.

국정원은 내게 관련 보고를 한 뒤인 2013년 8월 28일 통진당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 국정원 요원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실시했다. 이후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주기적으로 수사 상황을 내게 보고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경기동부연합의 내부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하는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결정적 시기가 오면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한 뒤 무장봉기를 획책한다는 전략

은 북한의 대남 전략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국의 진보 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RO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즉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그런 계획에 맞춰 이들이 통합진보당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고, 대선까지 출마한 것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방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라로 부를 수조차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 물론 국정원이 공개수사로 전환하면 정치적 부담은 무척 커질 터였다. 야당에서는 과거 사례 등을 들어 '야당 탄압'이나 '공안정국' 등을 주장하며 대외 공세에 나설 것이 뻔했다. 하지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감 중 하나가 안보 문제였다. 안보에 대한 타협하거나 야당의 반발이 우려돼 할 일을 피한다면 내가 정치



2013년 9월 4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구인하려고 하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옷을 잡아당기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거나 대통령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늘 생각해 왔다.

그래서 나는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장외 집회를 이어나간 것이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통진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당일 종적을 감춰다가 이튿날 나타난 이석기 의원은 "진보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국정원의 날조·조작 사건"이라며 잡아됐고, 당 차원의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었다. 해방 이래 친북·중북 세력은 한 번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등을 청구하면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통진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통진당 해산이라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까지 진행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법무부는 18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고, 2014년 11월 25일 최종변론에서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독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합진보당의 해산

을 요구했다. 나는 12월 19일로 잡힌 헌재의 선고가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기를 바랐다. 다행히 8: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고,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식 해산됐다.

나는 비로소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다. 이에 대해 2014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통진당 해산 이후 중앙일보가 2014년 12월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3.8%였다. 반면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떨떠름한 반응이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2월 10일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떤 단체나 사람의 본질이 가장 확실하게 표출되는 법이다.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보여도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가려졌던 실체가 딱 드러나게 돼 있다.

국민 여론도 '통진당 해산 찬성' 64%

체제 전복 음모가 드러나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국민들은 분명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에 큰 신뢰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선 내가 2012년 대선 당시 이정희 통진당 후보에게 쌓인 개인적 감정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을 가했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12년 12월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내전에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의 악연 때문에 내가 통진당을 해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멸절했던 통진당이 갑자기 체제전복을 준비했다단 말인가.

처음엔 수사에 대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체제전복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자 더는 무시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2013년 9월 4일)은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라는 압도적인 차로 통과됐다. 만약 통진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음모나 개인적 복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사사건건 대립하던 국회가 이런 일치된 결과를 만들 순 없었을 것이다.

정리·김정하 논설위원
유성운·손국희 기자

부동산 명품 브랜드, REALTYONEGROUP 슈나이더팀 부동산을 찾으십시오!

내집장만 부동산 세미나

- MD 11월 13일 (월) 5:45pm 5850 Waterloo Rd. #140 Columbia, MD 21045
- VA 11월 20일 (월) 5:45p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주 택, 사업체,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주택원 렌딩 서비스,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투자 컨설팅

동을 함께하실 1101년도 준비!

대표 승경호 703.928.5990 ksd@dwe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자

시 설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제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선 출마 질문을 받아 “재판에서 법적으로 해명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치적 방식’이란 표현도 써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

1심 유죄 조국, ‘돈봉투’ 송영길, 정권 뺨친 추미애 거센 역풍 뺨해 “그들 나오면 민주당 100석도 힘들 것”

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가석방됐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조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교육·입시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분노를 안긴 장본인이다. 반성의 석고대죄로도 부족할 판에다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출마라니 인간의 물염치도 이만 한 물염치가 없다.

송 전 대표의 출마도 명분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자들이 돈봉투 전달을 시인한 데 이어 윤관석 의원에 돈봉투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모두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뛰던 이들에 정작 수혜자가 ‘정치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

하고 있다. 출마는 고사하고 이제라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며 용서를 구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더욱이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스스로 출마설에 선을 긋는 게 그나마 당시의 진정성을 지키는 길이다.

추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 탄핵·퇴진 운동을 주장하며 총선 출마의 군불을 때고 있다. 서울 광진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 각종 무리수와 수사지휘권을 남발·남용했던 장본인이 누구였나. 당내

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준 일등 공신”이란 조소를 받아 왔다. 아무런 대의명분조차 없는 세 사람의 출마 저울질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슬쩍 엿보려겠다는 알팍한 태도일 뿐이다.

이들의 출마설에 민주당은 속앓이를 하고, 국민의힘은 내심 반색한다. 비례정당 창당설까지 도는 조 전 장관은 “범민주 진보 세력, 국민의힘 이탈 세력까지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들이 실제 출마하면 30%에 달하는 중도·무당층의 큰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송·추 출마하면 100석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린이들의 무덤’ 된 이-팔 전쟁... 당사국들 자제해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이 지났다. 지난달 7일 이후 양측에서 사망자만 이미 1만 명을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10분마다 1명씩 희생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지상전이 시작됐고, 시가전을 앞두고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사는 뿌리 깊지만, 적어도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도발과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서 시작됐기에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후 하마스 척결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보복 공격 와중에 난민 캠프 등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이 비난 받고 있고, 이스라엘 측 인질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방패 삼는 하마스의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쟁과 군사작전도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IHL)을 지켜야 한다. 유엔의 국제인도법에는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차 제네바 협약(1949년)이나 1998년 로마에서 채택돼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 있다. 유엔은 국제인도법을 통해 교전 당사자는 민간인이 아닌 전투원만 공격한다는 구별의 원칙, 과도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면

공격하면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라는 예방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상황을 돌아보면 국제인도법 규정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유엔본부에서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악몽은 인도주의적 위기 그 이상으로, 이것은 인류의 위기”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질 석방 없이 가자지구에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휴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시비비를 떠나 무엇보다 민간인이 희생되는 전쟁만은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요르단 이 유엔 비상총회에 제안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흐지부지된 형국이다. 오는 9일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휴전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놓고 거부권을 쥔 5개 상임이사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주의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 유엔이 이번에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반드시 도출해 주길 바란다.

서울뿐인 대한민국?

최현철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전방을 겨누는 총이 전신주를 빙 돌아 자신의 뒤통수를 향하는 반전 포스터. 굴뚝 아래 건물 벽에 권총 몸체를 그려넣어 대기오염을 경고한 옥외 광고. 경찰차가 달리는 모습을 마치 총알이 뚫고 간 자리처럼 연출한 부산의 경찰서 옥외 광고. 이제석 광고 디자이너는 이처럼 상식과 관행을 깨는 아이디어로 매번 깊은 인상을 주는 공익광고를 만들어 왔다.

그런 이 디자이너가 뉴욕에서 활동하던 2009년 한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지도 한 장을 올렸다. 분명 한국 지도인데 휴전선 아래가 다 바다였다. 오직 서울만 제주처럼 섬으로 덩그러니 남은 지도 위에 ‘신대한민국전도’란 제목이 붙었다. 아래엔 ‘서울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란 문구가 달렸다. 최근 여당이 불을 지핀 ‘뉴 시티 프로젝트’(김포 서울 편입) 논란을 보며 이 지도가 문득 떠올랐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지방 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세부 정책을 시행했다. 지방자치제나 신행정수도가 그런 맥락이고, 혁신도시나 지역 특구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수도권 개발은 강력히 억제했다. 특히 서울 확장은 엄격한 금기였다. 과거에는 서울시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나 아파트값 상승을 바라는 욕구가 없었을까. 당장 주민 이해에 반하고 불편해도,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 하기에 50년 넘게 지켜온 원칙이다.

그런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을 더 메가(Mega)하게’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무리 총선 공약이라도 이 정도 의제를 던지려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며 든 근거는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인구의 85%에 이른다는 지역 정치인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85%는 김포 골드라인 탑승자 중 김포공항역에 내리는 비율이었다. 실제 김포시의 서울 통근 인원은 6만4000명, 인구 대비 서울 통근자 비율은 12.7%로 모두 수도권 도시 중 10위권이다(2020년 통계청 인구조사).

김 대표 발표 이후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이틀날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 ‘더 메가한 서울’과는 결이 다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서울 통합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동연구반을 만들자”고 했다. 총선용이 아닌 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얘기다. 같은 당 소속 인근 지자체장도 설득하지 않은 채 ‘깜짝 발표’부터 한 셈이다. 어디에도 숙고와 의견 수렴, 설득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라는 소논문을 공개했다. 최근 20년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꾸준히 인구가 이동했고, 이 중 청년

총선용으로 던진 김포 서울 편입 50년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역할 내부 설득도 없이 발표, 혼란 자초

층의 비중이 가장 컸다는 내용이다. 지방은 아이 낳을 연령대가 줄면서 인구가 더 급속히 줄고, 수도권에선 높은 경쟁 때문에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방 소멸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도 맹목한 걸림돌이며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김 대표의 발표 이후 구리, 하남, 광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라고 다를까. 결국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는 “의견을 모아보면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다. 안 받아줄 명분도 없다.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무슨 명목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이 디자이너는 당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도 제작 이유에 대해 “(나라) 밖에서 본 한국은 서울뿐이었고, 수도권만 과잉 발전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지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충고는 이제 수명을 다했나 보다. 지도 한 장 더 그리면 어떨지.

사회디렉터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1차 인쇄: 서울, 2차 인쇄: 서울, 3차 인쇄: 서울, 4차 인쇄: 서울, 5차 인쇄: 서울, 6차 인쇄: 서울, 7차 인쇄: 서울, 8차 인쇄: 서울, 9차 인쇄: 서울, 10차 인쇄: 서울, 11차 인쇄: 서울, 12차 인쇄: 서울, 13차 인쇄: 서울, 14차 인쇄: 서울, 15차 인쇄: 서울, 16차 인쇄: 서울, 17차 인쇄: 서울, 18차 인쇄: 서울, 19차 인쇄: 서울, 20차 인쇄: 서울, 21차 인쇄: 서울, 22차 인쇄: 서울, 23차 인쇄: 서울, 24차 인쇄: 서울, 25차 인쇄: 서울, 26차 인쇄: 서울, 27차 인쇄: 서울, 28차 인쇄: 서울, 29차 인쇄: 서울, 30차 인쇄: 서울, 31차 인쇄: 서울, 32차 인쇄: 서울, 33차 인쇄: 서울, 34차 인쇄: 서울, 35차 인쇄: 서울, 36차 인쇄: 서울, 37차 인쇄: 서울, 38차 인쇄: 서울, 39차 인쇄: 서울, 40차 인쇄: 서울, 41차 인쇄: 서울, 42차 인쇄: 서울, 43차 인쇄: 서울, 44차 인쇄: 서울, 45차 인쇄: 서울, 46차 인쇄: 서울, 47차 인쇄: 서울, 48차 인쇄: 서울, 49차 인쇄: 서울, 50차 인쇄: 서울, 51차 인쇄: 서울, 52차 인쇄: 서울, 53차 인쇄: 서울, 54차 인쇄: 서울, 55차 인쇄: 서울, 56차 인쇄: 서울, 57차 인쇄: 서울, 58차 인쇄: 서울, 59차 인쇄: 서울, 60차 인쇄: 서울, 61차 인쇄: 서울, 62차 인쇄: 서울, 63차 인쇄: 서울, 64차 인쇄: 서울, 65차 인쇄: 서울, 66차 인쇄: 서울, 67차 인쇄: 서울, 68차 인쇄: 서울, 69차 인쇄: 서울, 70차 인쇄: 서울, 71차 인쇄: 서울, 72차 인쇄: 서울, 73차 인쇄: 서울, 74차 인쇄: 서울, 75차 인쇄: 서울, 76차 인쇄: 서울, 77차 인쇄: 서울, 78차 인쇄: 서울, 79차 인쇄: 서울, 80차 인쇄: 서울, 81차 인쇄: 서울, 82차 인쇄: 서울, 83차 인쇄: 서울, 84차 인쇄: 서울, 85차 인쇄: 서울, 86차 인쇄: 서울, 87차 인쇄: 서울, 88차 인쇄: 서울, 89차 인쇄: 서울, 90차 인쇄: 서울, 91차 인쇄: 서울, 92차 인쇄: 서울, 93차 인쇄: 서울, 94차 인쇄: 서울, 95차 인쇄: 서울, 96차 인쇄: 서울, 97차 인쇄: 서울, 98차 인쇄: 서울, 99차 인쇄: 서울, 100차 인쇄: 서울, 101차 인쇄: 서울, 102차 인쇄: 서울, 103차 인쇄: 서울, 104차 인쇄: 서울, 105차 인쇄: 서울, 106차 인쇄: 서울, 107차 인쇄: 서울, 108차 인쇄: 서울, 109차 인쇄: 서울, 110차 인쇄: 서울, 111차 인쇄: 서울, 112차 인쇄: 서울, 113차 인쇄: 서울, 114차 인쇄: 서울, 115차 인쇄: 서울, 116차 인쇄: 서울, 117차 인쇄: 서울, 118차 인쇄: 서울, 119차 인쇄: 서울, 120차 인쇄: 서울, 121차 인쇄: 서울, 122차 인쇄: 서울, 123차 인쇄: 서울, 124차 인쇄: 서울, 125차 인쇄: 서울, 126차 인쇄: 서울, 127차 인쇄: 서울, 128차 인쇄: 서울, 129차 인쇄: 서울, 130차 인쇄: 서울, 131차 인쇄: 서울, 132차 인쇄: 서울, 133차 인쇄: 서울, 134차 인쇄: 서울, 135차 인쇄: 서울, 136차 인쇄: 서울, 137차 인쇄: 서울, 138차 인쇄: 서울, 139차 인쇄: 서울, 140차 인쇄: 서울, 141차 인쇄: 서울, 142차 인쇄: 서울, 143차 인쇄: 서울, 144차 인쇄: 서울, 145차 인쇄: 서울, 146차 인쇄: 서울, 147차 인쇄: 서울, 148차 인쇄: 서울, 149차 인쇄: 서울, 150차 인쇄: 서울, 151차 인쇄: 서울, 152차 인쇄: 서울, 153차 인쇄: 서울, 154차 인쇄: 서울, 155차 인쇄: 서울, 156차 인쇄: 서울, 157차 인쇄: 서울, 158차 인쇄: 서울, 159차 인쇄: 서울, 160차 인쇄: 서울, 161차 인쇄: 서울, 162차 인쇄: 서울, 163차 인쇄: 서울, 164차 인쇄: 서울, 165차 인쇄: 서울, 166차 인쇄: 서울, 167차 인쇄: 서울, 168차 인쇄: 서울, 169차 인쇄: 서울, 170차 인쇄: 서울, 171차 인쇄: 서울, 172차 인쇄: 서울, 173차 인쇄: 서울, 174차 인쇄: 서울, 175차 인쇄: 서울, 176차 인쇄: 서울, 177차 인쇄: 서울, 178차 인쇄: 서울, 179차 인쇄: 서울, 180차 인쇄: 서울, 181차 인쇄: 서울, 182차 인쇄: 서울, 183차 인쇄: 서울, 184차 인쇄: 서울, 185차 인쇄: 서울, 186차 인쇄: 서울, 187차 인쇄: 서울, 188차 인쇄: 서울, 189차 인쇄: 서울, 190차 인쇄: 서울, 191차 인쇄: 서울, 192차 인쇄: 서울, 193차 인쇄: 서울, 194차 인쇄: 서울, 195차 인쇄: 서울, 196차 인쇄: 서울, 197차 인쇄: 서울, 198차 인쇄: 서울, 199차 인쇄: 서울, 200차 인쇄: 서울, 201차 인쇄: 서울, 202차 인쇄: 서울, 203차 인쇄: 서울, 204차 인쇄: 서울, 205차 인쇄: 서울, 206차 인쇄: 서울, 207차 인쇄: 서울, 208차 인쇄: 서울, 209차 인쇄: 서울, 210차 인쇄: 서울, 211차 인쇄: 서울, 212차 인쇄: 서울, 213차 인쇄: 서울, 214차 인쇄: 서울, 215차 인쇄: 서울, 216차 인쇄: 서울, 217차 인쇄: 서울, 218차 인쇄: 서울, 219차 인쇄: 서울, 220차 인쇄: 서울, 221차 인쇄: 서울, 222차 인쇄: 서울, 223차 인쇄: 서울, 224차 인쇄: 서울, 225차 인쇄: 서울, 226차 인쇄: 서울, 227차 인쇄: 서울, 228차 인쇄: 서울, 229차 인쇄: 서울, 230차 인쇄: 서울, 231차 인쇄: 서울, 232차 인쇄: 서울, 233차 인쇄: 서울, 234차 인쇄: 서울, 235차 인쇄: 서울, 236차 인쇄: 서울, 237차 인쇄: 서울, 238차 인쇄: 서울, 239차 인쇄: 서울, 240차 인쇄: 서울, 241차 인쇄: 서울, 242차 인쇄: 서울, 243차 인쇄: 서울, 244차 인쇄: 서울, 245차 인쇄: 서울, 246차 인쇄: 서울, 247차 인쇄: 서울, 248차 인쇄: 서울, 249차 인쇄: 서울, 250차 인쇄: 서울, 251차 인쇄: 서울, 252차 인쇄: 서울, 253차 인쇄: 서울, 254차 인쇄: 서울, 255차 인쇄: 서울, 256차 인쇄: 서울, 257차 인쇄: 서울, 258차 인쇄: 서울, 259차 인쇄: 서울, 260차 인쇄: 서울, 261차 인쇄: 서울, 262차 인쇄: 서울, 263차 인쇄: 서울, 264차 인쇄: 서울, 265차 인쇄: 서울, 266차 인쇄: 서울, 267차 인쇄: 서울, 268차 인쇄: 서울, 269차 인쇄: 서울, 270차 인쇄: 서울, 271차 인쇄: 서울, 272차 인쇄: 서울, 273차 인쇄: 서울, 274차 인쇄: 서울, 275차 인쇄: 서울, 276차 인쇄: 서울, 277차 인쇄: 서울, 278차 인쇄: 서울, 279차 인쇄: 서울, 280차 인쇄: 서울, 281차 인쇄: 서울, 282차 인쇄: 서울, 283차 인쇄: 서울, 284차 인쇄: 서울, 285차 인쇄: 서울, 286차 인쇄: 서울, 287차 인쇄: 서울, 288차 인쇄: 서울, 289차 인쇄: 서울, 290차 인쇄: 서울, 291차 인쇄: 서울, 292차 인쇄: 서울, 293차 인쇄: 서울, 294차 인쇄: 서울, 295차 인쇄: 서울, 296차 인쇄: 서울, 297차 인쇄: 서울, 298차 인쇄: 서울, 299차 인쇄: 서울, 300차 인쇄: 서울, 301차 인쇄: 서울, 302차 인쇄: 서울, 303차 인쇄: 서울, 304차 인쇄: 서울, 305차 인쇄: 서울, 306차 인쇄: 서울, 307차 인쇄: 서울, 308차 인쇄: 서울, 309차 인쇄: 서울, 310차 인쇄: 서울, 311차 인쇄: 서울, 312차 인쇄: 서울, 313차 인쇄: 서울, 314차 인쇄: 서울, 315차 인쇄: 서울, 316차 인쇄: 서울, 317차 인쇄: 서울, 318차 인쇄: 서울, 319차 인쇄: 서울, 320차 인쇄: 서울, 321차 인쇄: 서울, 322차 인쇄: 서울, 323차 인쇄: 서울, 324차 인쇄: 서울, 325차 인쇄: 서울, 326차 인쇄: 서울, 327차 인쇄: 서울, 328차 인쇄: 서울, 329차 인쇄: 서울, 330차 인쇄: 서울, 331차 인쇄: 서울, 332차 인쇄: 서울, 333차 인쇄: 서울, 334차 인쇄: 서울, 335차 인쇄: 서울, 336차 인쇄: 서울, 337차 인쇄: 서울, 338차 인쇄: 서울, 339차 인쇄: 서울, 340차 인쇄: 서울, 341차 인쇄: 서울, 342차 인쇄: 서울, 343차 인쇄: 서울, 344차 인쇄: 서울, 345차 인쇄: 서울, 346차 인쇄: 서울, 347차 인쇄: 서울, 348차 인쇄: 서울, 349차 인쇄: 서울, 350차 인쇄: 서울, 351차 인쇄: 서울, 352차 인쇄: 서울, 353차 인쇄: 서울, 354차 인쇄: 서울, 355차 인쇄: 서울, 356차 인쇄: 서울, 357차 인쇄: 서울, 358차 인쇄: 서울, 359차 인쇄: 서울, 360차 인쇄: 서울, 361차 인쇄: 서울, 362차 인쇄: 서울, 363차 인쇄: 서울, 364차 인쇄: 서울, 365차 인쇄: 서울, 366차 인쇄: 서울, 367차 인쇄: 서울, 368차 인쇄: 서울, 369차 인쇄: 서울, 370차 인쇄: 서울, 371차 인쇄: 서울, 372차 인쇄: 서울, 373차 인쇄: 서울, 374차 인쇄: 서울, 375차 인쇄: 서울, 376차 인쇄: 서울, 377차 인쇄: 서울, 378차 인쇄: 서울, 379차 인쇄: 서울, 380차 인쇄: 서울, 381차 인쇄: 서울, 382차 인쇄: 서울, 383차 인쇄: 서울, 384차 인쇄: 서울, 385차 인쇄: 서울, 386차 인쇄: 서울, 387차 인쇄: 서울, 388차 인쇄: 서울, 389차 인쇄: 서울, 390차 인쇄: 서울, 391차 인쇄: 서울, 392차 인쇄: 서울, 393차 인쇄: 서울, 394차 인쇄: 서울, 395차 인쇄: 서울, 396차 인쇄: 서울, 397차 인쇄: 서울, 398차 인쇄: 서울, 399차 인쇄: 서울, 400차 인쇄: 서울, 401차 인쇄: 서울, 402차 인쇄: 서울, 403차 인쇄: 서울, 404차 인쇄: 서울, 405차 인쇄: 서울, 406차 인쇄: 서울, 407차 인쇄: 서울, 408차 인쇄: 서울, 409차 인쇄: 서울, 410차 인쇄: 서울, 411차 인쇄: 서울, 412차 인쇄: 서울, 413차 인쇄: 서울, 414차 인쇄: 서울, 415차 인쇄: 서울, 416차 인쇄: 서울, 417차 인쇄: 서울, 418차 인쇄: 서울, 419차 인쇄: 서울, 420차 인쇄: 서울, 421차 인쇄: 서울, 422차 인쇄: 서울, 423차 인쇄: 서울, 424차 인쇄: 서울, 425차 인쇄: 서울, 426차 인쇄: 서울, 427차 인쇄: 서울, 428차 인쇄: 서울, 429차 인쇄: 서울, 430차 인쇄: 서울, 431차 인쇄: 서울, 432차 인쇄: 서울, 433차 인쇄: 서울, 434차 인쇄: 서울, 435차 인쇄: 서울, 436차 인쇄: 서울, 437차 인쇄: 서울, 438차 인쇄: 서울, 439차 인쇄: 서울, 440차 인쇄: 서울, 441차 인쇄: 서울, 442차 인쇄: 서울, 443차 인쇄: 서울, 444차 인쇄: 서울, 445차 인쇄: 서울, 446차 인쇄: 서울, 447차 인쇄: 서울, 448차 인쇄: 서울, 449차 인쇄: 서울, 450차 인쇄: 서울, 451차 인쇄: 서울, 452차 인쇄: 서울, 453차 인쇄: 서울, 454차 인쇄: 서울, 455차 인쇄: 서울, 456차 인쇄: 서울, 457차 인쇄: 서울, 458차 인쇄: 서울, 459차 인쇄: 서울, 460차 인쇄: 서울, 461차 인쇄: 서울, 462차 인쇄: 서울, 463차 인쇄: 서울, 464차 인쇄: 서울, 465차 인쇄: 서울, 466차 인쇄: 서울, 467차 인쇄: 서울, 468차 인쇄: 서울, 469차 인쇄: 서울, 470차 인쇄: 서울, 471차 인쇄: 서울, 472차 인쇄: 서울, 473차 인쇄: 서울, 474차 인쇄: 서울, 475차 인쇄: 서울, 476차 인쇄: 서울, 477차 인쇄: 서울, 478차 인쇄: 서울, 479차 인쇄: 서울, 480차 인쇄: 서울, 481차 인쇄: 서울, 482차 인쇄: 서울, 483차 인쇄: 서울, 484차 인쇄: 서울, 485차 인쇄: 서울, 486차 인쇄: 서울, 487차 인쇄: 서울, 488차 인쇄: 서울, 489차 인쇄: 서울, 490차 인쇄: 서울, 491차 인쇄: 서울, 492차 인쇄: 서울, 493차 인쇄: 서울, 494차 인쇄: 서울, 495차 인쇄: 서울, 496차 인쇄: 서울, 497차 인쇄: 서울, 498차 인쇄: 서울, 499차 인쇄: 서울, 500차 인쇄: 서울, 501차 인쇄: 서울, 502차 인쇄: 서울, 503차 인쇄: 서울, 504차 인쇄: 서울, 505차 인쇄: 서울, 506차 인쇄: 서울, 507차 인쇄: 서울, 508차 인쇄: 서울, 509차 인쇄: 서울, 510차 인쇄: 서울, 511차 인쇄: 서울, 512차 인쇄: 서울, 513차 인쇄: 서울, 514차 인쇄: 서울, 515차 인쇄: 서울, 516차 인쇄: 서울, 517차 인쇄: 서울, 518차 인쇄: 서울, 519차 인쇄: 서울, 520차 인쇄: 서울, 521차 인쇄: 서울, 522차 인쇄: 서울, 523차 인쇄: 서울, 524차 인쇄: 서울, 525차 인쇄: 서울, 526차 인쇄: 서울, 527차 인쇄: 서울, 528차 인쇄: 서울, 529차 인쇄: 서울, 530차 인쇄: 서울, 531차 인쇄: 서울, 532차 인쇄: 서울, 533차 인쇄: 서울, 534차 인쇄: 서울, 535차 인쇄: 서울, 536차 인쇄: 서울, 537차 인쇄: 서울, 538차 인쇄: 서울, 539차 인쇄: 서울, 540차 인쇄: 서울, 541차 인쇄: 서울, 542차 인쇄: 서울, 543차 인쇄: 서울, 544차 인쇄: 서울, 545차 인쇄: 서울, 546차 인쇄: 서울, 547차 인쇄: 서울, 548차 인쇄: 서울, 549차 인쇄: 서울, 550차 인쇄: 서울, 551차 인쇄: 서울, 552차 인쇄: 서울, 553차 인쇄: 서울, 554차 인쇄: 서울, 555차 인쇄: 서울, 556차 인쇄: 서울, 557차 인쇄: 서울, 558차 인쇄: 서울, 559차 인쇄: 서울, 560차 인쇄: 서울, 561차 인쇄: 서울, 562차 인쇄: 서울, 563차 인쇄: 서울, 564차 인쇄: 서울, 565차 인쇄: 서울, 566차 인쇄: 서울, 567차 인쇄: 서울, 568차 인쇄: 서울, 569차 인쇄: 서울, 570차 인쇄: 서울, 571차 인쇄: 서울, 572차 인쇄: 서울, 573차 인쇄: 서울, 574차 인쇄: 서울, 575차 인쇄: 서울, 576차 인쇄: 서울, 577차 인쇄: 서울, 578차 인쇄: 서울, 579차 인쇄: 서울, 580차 인쇄: 서울, 581차 인쇄: 서울, 582차 인쇄: 서울, 583차 인쇄: 서울, 584차 인쇄: 서울, 585차 인쇄: 서울, 586차 인쇄: 서울, 587차 인쇄: 서울, 588차 인쇄: 서울, 589차 인쇄: 서울, 590차 인쇄: 서울, 591차 인쇄: 서울, 592차 인쇄: 서울, 593차 인쇄: 서울, 594차 인쇄: 서울, 595차 인쇄: 서울, 596차 인쇄: 서울, 597차 인쇄: 서울, 598차 인쇄: 서울, 599차 인쇄: 서울, 600차 인쇄: 서울, 601차 인쇄: 서울, 602차 인쇄: 서울, 603차 인쇄: 서울, 604차 인쇄: 서울, 605차 인쇄: 서울, 606차 인쇄: 서울, 607차 인쇄: 서울, 608차 인쇄: 서울, 609차 인쇄: 서울, 610차 인쇄: 서울, 611차 인쇄: 서울, 612차 인쇄: 서울, 613차 인쇄: 서울, 614차 인쇄: 서울, 615차 인쇄: 서울, 616차 인쇄: 서울, 617차 인쇄: 서울, 618차 인쇄: 서울, 619차 인쇄: 서울, 620차 인쇄: 서울, 621차 인쇄: 서울, 622차 인쇄: 서울, 623차 인쇄: 서울, 624차 인쇄: 서울, 625차 인쇄: 서울, 626차 인쇄: 서울, 627차 인쇄: 서울, 628차 인쇄: 서울, 629차 인쇄: 서울, 630차 인쇄: 서울, 631차 인쇄: 서울, 632차 인쇄: 서울, 633차 인쇄: 서울, 634차 인쇄: 서울, 635차 인쇄: 서울, 636차 인쇄: 서울, 637차 인쇄: 서울, 638차 인쇄: 서울, 639차 인쇄: 서울, 640차 인쇄: 서울, 641차 인쇄: 서울, 642차 인쇄: 서울, 643차 인쇄: 서울, 644차 인쇄: 서울, 645차 인쇄: 서울, 646차 인쇄: 서울, 647차 인쇄: 서울, 648차 인쇄: 서울, 649차 인쇄: 서울, 650차 인쇄: 서울, 651차 인쇄: 서울, 652차 인쇄: 서울, 653차 인쇄: 서울, 654차 인쇄: 서울, 655차 인쇄: 서울, 656차 인쇄: 서울, 657차 인쇄: 서울, 658차 인쇄: 서울, 659차 인쇄: 서울, 660차 인쇄: 서울, 661차 인쇄: 서울, 662차 인쇄: 서울, 663차 인쇄: 서울, 664차 인쇄: 서울, 665차 인쇄: 서울, 666차 인쇄: 서울, 667차 인쇄: 서울, 668차 인쇄: 서울, 669차 인쇄: 서울, 670차 인쇄: 서울, 671차 인쇄: 서울, 672차 인쇄: 서울, 673차 인쇄: 서울, 674차 인쇄: 서울, 675차 인쇄: 서울, 676차 인쇄: 서울, 677차 인쇄: 서울, 678차 인쇄: 서울, 679차 인쇄: 서울, 680차 인쇄: 서울, 681차 인쇄: 서울, 682차 인쇄: 서울, 683차 인쇄: 서울, 684차 인쇄: 서울, 685차 인쇄: 서울, 686차 인쇄: 서울, 687차 인쇄: 서울, 688차 인쇄: 서울, 689차 인쇄: 서울, 690차 인쇄: 서울, 691차 인쇄: 서울, 692차 인쇄: 서울, 693차 인쇄: 서울, 694차 인쇄: 서울, 695차 인쇄: 서울, 696차 인쇄: 서울, 697차 인쇄: 서울, 698차 인쇄: 서울, 699차 인쇄: 서울, 700차 인쇄: 서울, 701차 인쇄: 서울, 702차 인쇄: 서울, 703차 인쇄: 서울, 704차 인쇄: 서울, 705차 인쇄: 서울, 706차 인쇄: 서울, 707차 인쇄: 서울, 708차 인쇄: 서울, 709차 인쇄: 서울, 710차 인쇄: 서울, 711차 인쇄: 서울, 712차 인쇄: 서울, 713차 인쇄: 서울, 714차 인쇄: 서울, 715차 인쇄: 서울, 716차 인쇄: 서울, 717차 인쇄: 서울, 718차 인쇄: 서울, 719차 인쇄: 서울, 720차 인쇄: 서울, 721차 인쇄: 서울, 722차 인쇄: 서울, 723차 인쇄: 서울, 724차 인쇄: 서울, 725차 인쇄: 서울, 726차 인쇄: 서울, 727차 인쇄: 서울, 728차 인쇄: 서울, 729차 인쇄: 서울, 730차 인쇄: 서울, 731차 인쇄: 서울, 732차 인쇄: 서울, 733차 인쇄: 서울, 734차 인쇄: 서울, 735차 인쇄: 서울, 736차 인쇄: 서울, 737차 인쇄: 서울, 738차 인쇄: 서울, 739차 인쇄: 서울, 740차 인쇄: 서울, 741차 인쇄: 서울, 742차 인쇄: 서울, 743차 인쇄: 서울, 744차 인쇄: 서울, 745차 인쇄: 서울, 746차 인쇄: 서울, 747차 인쇄: 서울, 748차 인쇄: 서울, 749차 인쇄: 서울, 750차 인쇄: 서울, 751차 인쇄: 서울, 752차 인쇄: 서울, 753차 인쇄: 서울, 754차 인쇄: 서울, 755차 인쇄: 서울, 756차 인쇄: 서울, 757차 인쇄: 서울, 758차 인쇄: 서울, 759차 인쇄: 서울, 760차 인쇄: 서울, 761차 인쇄: 서울, 762차 인쇄: 서울, 763차 인쇄: 서울, 764차 인쇄: 서울, 765차 인쇄: 서울, 766차 인쇄: 서울, 767차 인쇄: 서울, 768차 인쇄: 서울, 769차 인쇄: 서울, 770차 인쇄: 서울, 771차 인쇄: 서울, 772차 인쇄: 서울, 773차 인쇄: 서울, 774차 인쇄: 서울, 775차 인쇄: 서울, 776차 인쇄: 서울, 777차 인쇄: 서울, 778차 인쇄: 서울, 779차 인쇄: 서울, 780차 인쇄: 서울, 781차 인쇄: 서울, 782차 인쇄: 서울, 783차 인쇄: 서울, 784차 인쇄: 서울, 785차 인쇄: 서울, 786차 인쇄: 서울, 787차 인쇄: 서울, 788차 인쇄: 서울, 789차 인쇄: 서울, 790차 인쇄: 서울, 791차 인쇄: 서울, 792차 인쇄: 서울, 793차 인쇄: 서울, 794차 인쇄: 서울, 795차 인쇄: 서울, 796차 인쇄: 서울, 797차 인쇄: 서울, 798차 인쇄: 서울, 799차 인쇄: 서울, 800차 인쇄: 서울, 801차 인쇄: 서울, 802차 인쇄: 서울, 803차 인쇄: 서울, 804차 인쇄: 서울, 805차 인쇄: 서울, 806차 인쇄: 서울, 807차 인쇄: 서울, 808차 인쇄: 서울, 809차 인쇄: 서울, 810차 인쇄: 서울, 811차 인쇄: 서울, 812차 인쇄: 서울, 813차 인쇄: 서울, 814차 인쇄: 서울, 815차 인쇄: 서울, 816차 인쇄: 서울, 817차 인쇄: 서울, 818차 인쇄: 서울, 819차 인쇄: 서울, 820차 인쇄: 서울, 821차 인쇄: 서울, 822차 인쇄: 서울, 823차 인쇄: 서울, 824차 인쇄: 서울, 825차 인쇄: 서울, 826차 인쇄: 서울, 827차 인쇄: 서울, 828차 인쇄: 서울, 829차 인쇄: 서울, 830차 인쇄: 서울, 831차 인쇄: 서울, 832차 인쇄: 서울, 833차 인쇄: 서울, 834차 인쇄: 서울, 835차 인쇄: 서울, 836차 인쇄: 서울, 837차 인쇄: 서울, 838차 인쇄: 서울, 839차 인쇄: 서울, 840차 인쇄: 서울, 841차 인쇄: 서울, 842차 인쇄: 서울, 843차 인쇄: 서울, 844차 인쇄: 서울, 845차 인쇄: 서울, 846차 인쇄: 서울, 847차 인쇄: 서울, 848차 인쇄: 서울, 849차 인쇄: 서울, 850차 인쇄: 서울, 851차 인쇄: 서울, 852차 인쇄: 서울, 853차 인쇄: 서울, 854차 인쇄: 서울, 855차 인쇄: 서울, 856차 인쇄: 서울, 857차 인쇄: 서울, 858차 인쇄: 서울, 859차 인쇄: 서울, 860차 인쇄: 서울, 861차 인쇄: 서울, 862차 인쇄: 서울, 863차 인쇄: 서울, 864차 인쇄: 서울, 865차 인쇄: 서울, 866차 인쇄: 서울, 867차 인쇄: 서울, 868차 인쇄: 서울, 869차 인쇄: 서울, 870차 인쇄: 서울, 871차 인쇄: 서울, 872차 인쇄: 서울, 873차 인쇄: 서울, 874차 인쇄: 서울, 875차 인쇄: 서울, 876차 인쇄: 서울, 877차 인쇄: 서울, 878차 인쇄: 서울, 879차 인쇄: 서울, 880차 인쇄: 서울, 881차 인쇄: 서울, 882차 인쇄: 서울, 883차 인쇄: 서울, 884차 인쇄: 서울, 885차 인쇄: 서울, 886차 인쇄: 서울, 887차 인쇄: 서울, 888차 인쇄: 서울, 889차 인쇄: 서울, 890차 인쇄: 서울, 891차 인쇄: 서울, 892차 인쇄: 서울, 893차 인쇄: 서울, 894차 인쇄: 서울, 895차 인쇄: 서울, 896차 인쇄: 서울, 897차 인쇄: 서울, 898차 인쇄: 서울, 899차 인쇄: 서울, 900차 인쇄: 서울, 901차 인쇄: 서울, 902차 인쇄: 서울, 903차 인쇄: 서울, 904차 인쇄: 서울, 905차 인쇄: 서울, 906차 인쇄: 서울, 907차 인쇄: 서울, 908차 인쇄: 서울, 909차 인쇄: 서울, 910차 인쇄: 서울, 911차 인쇄: 서울, 912차 인쇄: 서울, 913차 인쇄: 서울, 914차 인쇄: 서울, 915차 인쇄: 서울, 916차 인쇄: 서울, 917차 인쇄: 서울, 918차 인쇄: 서울, 919차 인쇄: 서울, 9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기능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WBS

WORLD BANKCARD SERVICES

 24시간 365일 친절환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29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November 8, 2023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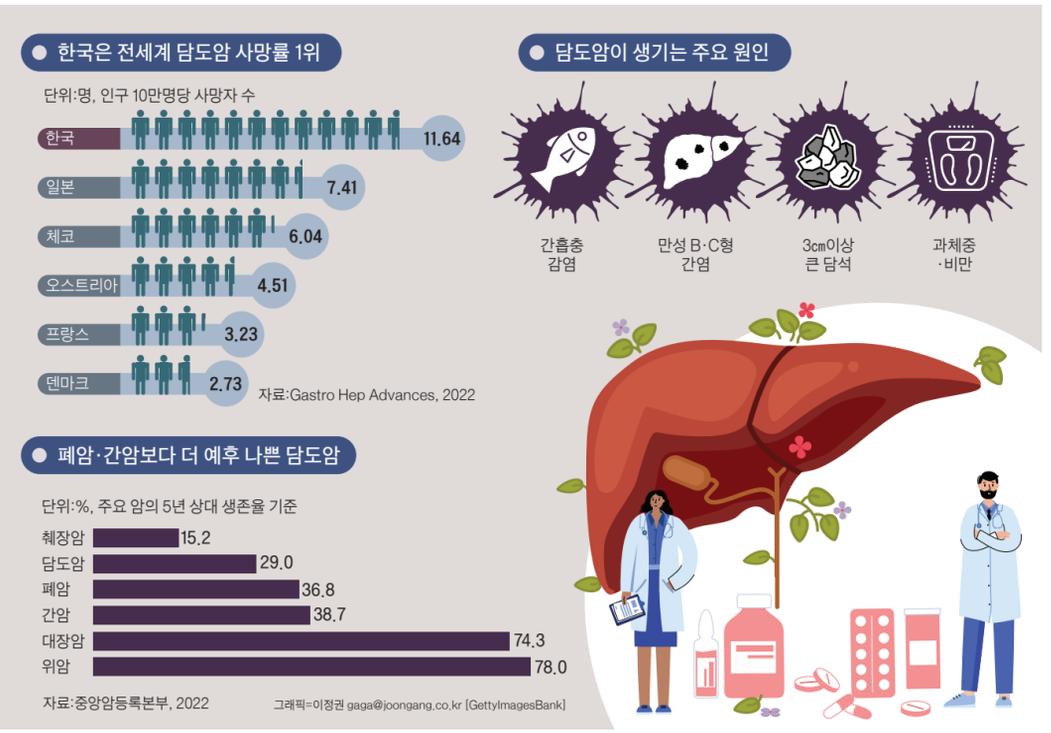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송어 날로 먹으면 담도암 위험 10배 높아진다

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인 담즙이 이동·저장하는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다. 담도암은 여러 암종에서도 독특한 암으로 분류된다. 암세포가 발생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초기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52.1%다. 원격 전이된 상태라면 그 비율이 2.8%로 푹 떨어진다. 대개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한 흔한 소화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담도암으로 진단받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국가다. 생소하지만 치명적인 담도암에 대해 알아봤다.

소화 잘 안되고 황달 오면 의심
담도암은 대표적인 난치 암이다. 깊은 산속에 높은 성벽을 쌓고 은닉한 난공 불락의 요새와 같다. 담도암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배출하는 통로인 '담관'과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인 '담낭'에 발생한다. 같은 담도암이라도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간내담도암, ▶간문부담도암, ▶간외 담도암 등으로 구분한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규택 교수는 "담도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담도암은 암세포가 담도를 따라 자라는 특성이다 세포병리학적으로 진단 민감도가 낮아 암 발견이 매우 어렵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는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는 10명중 2-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담도암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65% 이상은 암세포가 전이된 진행 병기에서 뒤늦게 발견된다. 발견이 늦은 데다 수술 후에 재발률도 높아 예후가 불량하다. 국내 담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9%로, 췌장암에 이어 2번째로 낮다. 치명적인 담도암에 적극적으로 대처



암 중 생존율 2번째로 낮은 난치암
자각 증상 없어 뒤늦게 발견 많아
간혹충 감염 오래되면 발병 위험
만성 B·C형 간염·담석증도 원인
복부 초음파 정기적 검사 받아야

하러면 의심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담도암은 암이 발생한 위치, 암세포의 침범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먼저 황달이다. 종양이 담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막으면서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서 생긴다.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외과 황대욱 교수는 "담즙 정체로 담즙의 주성분인 빌리루빈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황달로 소변이 황갈색으로 짙어지고,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피부도 노랗게 된다"고 말했다. 빌리루빈이 피부에 침착되면 가려움증이 생긴다. 담도 폐쇄가 서서히 진행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소화 불량도 흔하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 역할을 한다. 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는 "담도암으로 담즙이 정체되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특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소화불량으로 식욕이 줄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체중이 빠지기도 한다. 복통도 담도암의 주요 증상이다. 주로 명치 부근이나 오른쪽 복부 윗부분이 아프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장성일 교수는 "담도암 증상은 대부분은 비특이적이어서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담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담도암의 확실한 위험 요인중 하나는 간혹충 감염이다. 권선기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Centreville

정요한 안과 전문의 JOHN CHONG, M.D.

센터빌에 위치한 정요한 안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눈에 대한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족적인 안과입니다.

VIRGINIA ADULT AND PEDIATRIC OPHTHALMOLOGY

전공 / 경력

- 소아 안과 특별 연구원 수료
Pediatric Ophthalmology Fellowship at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 미국 안과 전문의 자격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 조지타운 대학병원에서 안과 레지던트 수료
Ophthalmology Residency at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MD)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ealth Sciences

원장 정요한 Dr. John Chong

예약문의 571-210-5535 **진료시간 8:30 AM-4:30 PM (월-금)**

5900 Fort Drive, Suite 301, Centreville, VA 20121 www.vapoeyes.com/korea

근육 만든다고 무리하게 운동, 복압 상승으로 탈장 위험 커져

‘똥똥’ 과욕이 부른 건강 역효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쫓는 ‘똥똥’ 열풍이 한창이다. 체중 감량과 근육 불리기에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는 ‘헬창’, 근육을 얻는다는 뜻의 ‘득근’이란 신조어도 덩달아 유행이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엔 다양한 몸만들기 과정과 후기가 쏟아진다. 이들은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늘리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식단·운동에 열중한다. 문제는 과할 때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성공 사례를 따라 하거나 단기간에 무리한 방법으로 몸을 만들다가 역효과가 난다.



복압 상승시키는 동작 지속 땀 복벽에 균열 고강도 운동을 무리하게 할 때 주의할 것 탈장이다. 내장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벽의 약한 부위로 밀려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축구·테니스·레슬링처럼 격렬한 활동을 자주 하는 운동선수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요즘엔 단기간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운동하는 일반인에게서도 탈장 발생이 적지 않다. 보통 운동량이 많으면 근육이 잘 발달해 탈장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운동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복압을 상승시키는 동작을 장기간 지속하면 복벽에 균열이 생겨 탈장 발생 위험이 커진다.

초기에 해당 부위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가벼운 통증을 동반한다. 급세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 탈장을 알아채기 쉽지 않다. 또 탈장 부위에 메추리알 크기 정도의 볼록한 덩어리가 만져지지만 손으로 누르거나 누워 있으면 사라

져 놓이기 쉽다. 그러나 탈장 상태가 악화하면 복부 장기에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심한 통증과 출혈을 유발한다. 심하면 장 폐색·괴사를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처치가 요구된다.

탈장은 복벽 모양이 구조적으로 변한 것이므로 수술이 필수다. 탈장이 발생한 부위에 인공 막을 이용해 복벽의 결손을 막아 이탈한 장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탈장은 수술해도 재발이 잘 되므로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운동 전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인대를 이완하고 고강도 운동을 할 땐 올바른 호흡법과 자세로 복부 내부 압력을 완화한다. 채소·과일을 충분히 먹고 저염식 위주로 식해 복압을 올릴 수 있는 변비와 복수를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몸만들기에 열중한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단백질 보충이다. 일상생활에서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고단백질 식품 위주의 식단을 선호한다. 근육을 좀 더 키우려는 욕심에 단백질 보충제까지 달고 산다.

이때 살펴야 할 건 콩팥 건강이다. 콩팥은 몸속 노폐물을 거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단백질에 포함된 질소는 요산이나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되는데 이를 걸러주는 장기인 콩팥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단백 식사를 하면 소화 과정에서 체내 질소가 과도하게 쌓여 콩팥에 무리를 주고 기능을 떨어뜨린다. 체내에 요산 생성도 늘어나지만 기능이 약해진 콩팥이 요산을 잘 배출해내지 못해 통풍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사람

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인은 체중 1kg당 단백질 1g 섭취를 권장한다. 근육량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면 체중 1kg당 1.5~2g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6~0.8g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질소 노폐물의 생성을 줄이고 체내 단백질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량의 50% 이상은 계란·고기·생선·우유 등 생물이 높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이때 섭취 목표량을 한번에 몰아 먹기보다 2~3번 이상 나눠 먹는 것을 권한다.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요즘 저탄고지 식단과 격렬한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먹는 식사법이다. 영

양학적으로 저탄수화물식은 체내 대사를 개선해 체중 조절에 도움되는 식사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고지 식단을 추구해 문제가 된다. 특히 저탄수화물보다 고지방에 방점을 뒀던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등 바람직하지 않은 영양소 섭취가 늘면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극단적 저탄고지식, 식도 괄약근 약화시켜 역류성 식도염이 대표적이다. 식도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괄약근이 있다. 상부 식도 괄약근은 공기가 식도로 유입되는 걸 막고, 하부 식도 괄약근은 음식물의 역류를 막는다. 이 하부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지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한다. 고지방식은 하부 식도 괄약근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지방 식품은 소화가 잘 안 돼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해 역류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근육량을 늘리겠다고 고중량으로 무리하게 운동하면 복압이 상승해 괄약근의 기능 저하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이 쉽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을 만든다고 잘못된 식사법과 무리한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산 억제제, 위 점막 보호제 등 적절한 약물치료로 증상 완화에 나선다.

김선영 기자

기고 고학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시한폭탄’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치료 땀 재발 감소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뇌 속 시한폭탄이다.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커지다가 어느 순간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치명적이다. 뇌동맥류는 파열 초기 사망 위험이 30%로 높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 뇌동맥류는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따라서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으로 고혈압 등 혈압과 연관된 질환, 뇌동맥류 가족력 등이 있다면 뇌 MRI, 뇌혈관 CT 등

으로 뇌동맥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됐다면 담당 주치의와 함께 동맥류의 모양·위치·크기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를 결정한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발견·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파열 가능성이 큰 뇌동맥류다. 모든 뇌동맥류가 터지는 것은 아니다. 크기가 작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작아 정기적으로 상태 변화를 추적하면서 경과를

관찰한다. 반면에 뇌동맥류가 3mm 이상으로 크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불규칙할 때, 뇌동맥류가 잘 터지는 위치에 생겼을 땐 파열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

뇌동맥류가 커져 주변 뇌 신경을 압박하면 뒷목이 뻐뻐해지는 느낌,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 뇌동맥류에 의해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갑자기 망치로 광광 내리치듯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벼락 두통

을 겪었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수 있다. 뇌동맥류가 이미 파열됐다면 초응급 상황이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첫 24시간 이내에 빈번하게 재파열이 발생하고, 재파열 시 사망률이 70%에 육박한다. 가급적 빨리 치료해야 한다.

파열 가능성이 크거나 경미한 뇌출혈이 발생한 동맥류는 수술·약물 치료 등으로 파열을 막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조치가 클립 결찰술이다. 두개골을 열고 클립 같은 고정집게로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잘라내 재발 가능성을 없앤다.

개두술로 머리뼈를 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뇌동맥류에 이물질(클립)을 삽입

해 파열을 막는 코일색전술보다 혈전 발생률이 낮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세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대처할 수 있어 뇌동맥류 치료 성공률이 높다.

개두술을 통한 클립 결찰술은 ▶동맥류 입구가 넓을 때 ▶동맥류가 작고 복잡할 때 ▶동맥류가 클 때 ▶동맥류로 뇌 신경 압박 증상이 있을 때 ▶신장 질환으로 조영제 사용이 어려울 때 ▶뇌동맥류 파열 후 뇌내 출혈 등을 동반해 뇌혈종 제거가 필요할 때 시도한다. 고난도 수술인 만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안구건조증
눈 수시로 깜빡이고 인공눈물로 눈물 보충



비강건조증
하루 1회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해 점막 관리



구강건조증
물 충분히 섭취하고 침 분비 돕는 음식 섭취



피부건조증
샤워 직후 크림 보습제로 피부 장벽 강화

겨울철 눈 건조증 무심코 넘겼다면 시력까지 떨어져

신체 부위별 건조증 대처법 신체 가뭄의 계절이다. 찬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우리 몸 곳곳에서도 '건조 경보'가 내려지고 있다. 눈부터 코, 입, 피부까지 메마름이 더해져 겨울철 건강을 위협한다. 건조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손 놓고 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증상이 악화해 또 다른 질환을 부를 수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건조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부위별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본다. 신영경 기자

눈 안구건조증
눈은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날엔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차가운 바람과 건조한 환경이 눈물층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눈물은 눈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안구 표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윤활제 역할을 해 각종 자극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한다. 그런데 겨울철엔 눈물이 쉽게 마르면서 평소 안구건조증이 없던 사람도 건조함을 느끼기 쉬워진다.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 시림과 이물감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눈 뜨기조차 힘들어진다. 단순히 눈이 건조한 상태라고 여겨 증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 건조증이 지속하면 각막 손상과 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눈물층은 언제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눈의 건조함을 막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안구건조증은 평소 간단한 생활수칙만 잘 지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수시로 깜빡여 주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눈물을 보충한다. 특히 겨울철 난방 기기를 사용할 때는 건조한 바람이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에 뻑뻑함이 심하게 느껴질 땐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공눈물은 눈의 건조함을 줄이고 이물질을 세척하는 효과가 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심한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방부제 성분이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대신 일회용은 오염에 취약하므로 한 번 개봉하면 1회 사용 후 바로 폐기한다. 방부제가 들어 있는 다회용 인공눈물은 각막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하루 사용 횟수가 4~6회로 정해져 있다. 인공눈물로 해결되지 않는 안구건조증이라면 레이저 치료나 눈물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코 비강건조증
날이 차고 건조해지면 코안도 메마른다. '비강건조증'이 나타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코는 호흡의 첫 번째 관문 역할을 담당한다. 코에 있는 점액과 섬모 세포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런데 비강이 건조하면 코가 당기듯이 간지럽고 만질 때 통증이 느껴진다. 코점막이 손상돼 코를 풀면 코피가 나기도 쉽다. 일반적인 경우 비강건조증으로 코피가 나더라도 단시간에 멈춘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했음에도 코피가 20~30분 넘게 흐르면 비염이나 축농증, 비전정염 등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비강건조증을 예방하려면 일단 코점막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코 세

척은 콧속 이물질을 제거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코로 들이마셔 삼키지 말고 입으로 뱉어 세척한다. 코 세척은 하루 1회 정도가 적당하다. 세척을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콧속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다. 실내가 건조하다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고 가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조절한다. 실내 습도는 50~60%가 적정하다. 가습기는 좁은 침실보다 넓은 거실에 두고 사용하는 게 좋다. 가습기 사용 시 청결은 필수다. 물통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도록 매일 세척해야 한다.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속품을 세척한 후 건조 상태로 놔둔다. 평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코를 자주 후비는 행동은 삼간다.

“ 눈 수시로 깜빡여 눈물 보충 코는 하루 한 번씩 세척해야 입 마름 심하면 인공 타액 사용 ”

입 구강건조증
건조한 환경은 입안의 수분도 빼앗는다. 그러면서 침 분비가 줄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구강건조증을 부른다. 구강건조증은 입안의 거의 모든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 씹는 것과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침이 적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결과다. 침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유해 물질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맡는다. 하지만 구강 내 건조함이 지속할 경우 심한 입 냄새와 혀 갈라짐, 혀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혀 통증은 별

다른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나 치주염 등 구강 건조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건조증을 방지하면 구강계양·충치·구내염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구강건조증도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것이다.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더하는 게 핵심이다. 하루 물 섭취량은 1.5L 이상이 적당하다. 수분 섭취가 어려울 경우 침샘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레몬과 오렌지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먹으면 침샘을 자극해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다. 사탕을 빨거나 껌을 씹어도 일시적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당분이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은 오히려 입안을 더 마르게 할 수 있으므로 무설탕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를 방해하는 술과 담배, 카페인 등 커피나 탄산음료 등은 가급적 피한다. 구강세척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게 현명하다. 건조함이 심할 땐 인공 타액을 사용해도 좋다. 안구건조증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눈물을 쓰는 것처럼 입안에 인공 타액을 넣는 것이다. 입안이 건조할 때 인공 타액을 5~10분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면 된다.

피부 피부건조증
피부건조증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져서 나타난다.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지방 분비가 적어진다. 그만큼 수분이 빨리 증발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이렇게 약해진 피부는 각질층의 수분이 날아가 푸

석후석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기 쉬워진다. 피부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건조증은 피지선이 적은 팔다리에 잘 생긴다.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 등 피부 질환자는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발진·가려움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자주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상처가 나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한다.

보습은 피부건조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충분한 보습을 통해 각질을 잠재우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보습제를 선택할 땐 제형과 성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젤·로션 타입은 보습력이 떨어지므로 꾸덕꾸덕한 제형의 크림류를 쓰는 것이 좋다. 성분을 살필 땐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되는 지질(세라미이드 성분 등)을 함유한 보습제를 고른다. 보습제는 샤워 직후 바로 발라주는 게 효과적이다. 몸에 묻은 물이 증발하면 피부 속 수분까지 함께 날아가기 때문이다. 샤워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땐 이미 피부의 수분 함량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샤워 후 물기가 약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온몸에 골고루 펴 바르고, 그 위에 보습제를 발라주면 보습 효과가 올라간다.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피부엔 좋지 않은 습관이다. 피부를 박박 문지르는 행동은 삼가고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가볍게 씻어낸다.

Tip

- 신체 건조함 물리치려면**
- 하루 1.5L 이상 충분히 수분 섭취하기
 - 실내 적정 습도(50~60%) 유지하기
 -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기
 - 차고 건조한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기
 - 피부 자극이 적고 통풍이 잘되는 옷 입기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고령 난임 부부 증가세… 빠른 임신 위한 적극적인 치료 필요”

인터뷰 이광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교수 고령의 난임 부부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신 시도와 유산이 반복돼 시간이 지나면 임신, 출산이 더 어려워진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이광 교수는 “38세 이상이면 빠른 임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임의 원인은 남성·여성 인자가 각각 반씩 차지하므로 부부가 함께 난임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 교수에게 증가하는 고령 임신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최신 검사와 치료에 대해 들었다. 이민영 기자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이광 교수는 “착상 전 유전검사 등으로 임신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빠른 임신을 돕는 최신 치료는 뭔가. “좋은 배아를 골라내는 착상 전 유전검사(PGT)다. 시험관 시술로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기 전, 염색체나 유전자를 검사해 정상 배아를 선별·이식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38세 이상 고령인 경우 PGT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아의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임신해도 대부분 유산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자·난자·배아의 염색체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PGT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 배아 비중은 여성 나이 35세 이하일 때 30~40%이나, 38세 이상에서는 50~60%로 높아진다. 45세에는 90%에 달한다. 유산되면 임신 유지 기간과 유산 후 회복 기간을 합쳐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고령이면 나이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 PGT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이 없는 정상 배아를 이식하면 건강한 출산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커진다.”

되므로 쌍둥이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PGT-SR은 염색체 수는 정상이나 구조적으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혈액검사에서 부부에게 비정상 염색체 구조가 발견됐다면 PGT-SR 검사를 진행한다. 부부의 가계에 유전병이 있다면 PGT-M 검사를 통해 아기의 유전병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난임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PGT-A다. 유전 질환이나 염색체 구조 이상은 흔한 건 아니다. 사전검사나 문진을 통해 적합한 검사를 결정한다.”

모든 난임 환자에게 PGT가 필요한가. “PGT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PGT-A는 고령의 여성이거나 반복 유산 또는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한 경우, 정자 상태가 심하게 안 좋은 남성 난임의 경우에 주로 한다. PGT-SR은 염색체 구조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며 PGT-M은 유전 질환이 있을 때 시행한다.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 후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

비용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고령이면 난자 수 자체가 적고 만들어지는 배아도 적어 임신 성공까지 여러 번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 PGT 검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난임 치료 과정 전체로 보았을 때 시술 횟수와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유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된다는 점에서 환

“착상 전 유전검사로 정상배아 이식 빠른 임신 돕고 유산율 낮춰 성과 난임 부부, 희망 버릴 필요 없다”

자의 부담과 고통을 덜 수 있다. 난임 치료 목적이 빠른 임신에 있으면 더욱 가치 있는 검사다.”

유전검사를 활용한 난임 치료에 성과를 내는 배경은 뭔가. “차병원이 가진 높은 역량의 배양 기술을 꼽을 수 있다. PGT를 하려면 검사할 수 있는 배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차병원은 좋은 배아를 만들기 위해 늘 주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 왔고 이에 대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였다. 고령 환자여도 배아를 충분히 잘 키워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배양 기술은 1, 2%의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래 유전 질환을 확인하는 PGT 검사를 난임 치료에 접목한 건 10여 년 정도 됐다. 배양·선별 기술 등 난임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성공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는 찾은 환자의 74%는 35세 이상 환자다. 서울역센터에서 실시한 PGT 검사는 누적 1만 1000건이 넘는다.”

환자들에게 평소 어떤 점을 당부하나.

“난임 치료를 받는 연령대가 높아졌지만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치료했던 환자 중에는 만 47세에 시험관야기 시술로 임신에 성공해 건강하게 출산까지 한 분이 있었다. 이때 사용한 난자는 미리 냉동해둔 난자나 젊은 사람에게 공여받은 난자가 아니라 당시에 채취한 신선 난자였다. 수준 높은 의료진과 배양 시설, 기술을 가진 곳에서 난임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주치의의 믿고, 식생활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남편도 함께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 된다.”

▶ 1면 ‘숨어’에서 이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간흡충 감염이 담도암의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이규택 교수는 “간흡충이 담도 내에 기생하면서 담도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암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간흡충은 주로 송어·메기·쏘가리·잉어 등 민물고기나 민물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다가 감염된다. 간흡충 감염률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담도암 발생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 간흡충에 감염된 기간이 오래될수록 담도암 위험성은 높아진다.

있다. 권창일 교수는 “만성적인 간 염증을 유발하는 만성 B·C형 간염은 간암의 원인인자이면서 담도암 위험인자”라고 말했다. 만성 B형 간염을 가진 환자는 담도암중에서도 수술이 어려운 간내담도암 발생 위험이 8배 이상 높다. 만성 B·C형 간염 바이라스 보균자라면 발생 위험이 높은 간암·간내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담석이 있을 때도 담도암에 주의한다. 장성일 교수는 “담석 그 자체가 담도암을 유발하기보다는 담석증에 의한 담즙 변화, 담낭의 만성적 자극·염증이 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한

다”고 말했다. 담낭에 암이 생기는 담도암 환자의 60% 이상은 담석을 가지고 있다. 담석이 있으면 담도암 발생 위험도가 4~7배 증가한다. 담도암은 담석의 크기가 클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담석이 담도암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담즙 흐름을 방해하면서 이차적으로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이면 암 발생 위험이 10배 가량 높아진다. 담석이 크다면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고려한다. 이 외에도 비만·과체중일 때도 담도암 위험이 증가한다.

현실적으로 담도암은 수술이 어려운 진행 병기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담도암 특성상 재발할 확률이 60~70%로 높다. 최근엔 담도암의 치료 환경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근치적 치료인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에도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홍재 교수는 “세포독성항암제에 면역항암제를 추가했다니 전체 생존율이 2배나 높아졌고, 항암 치료로 암세포가 증식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길어져 사망위험도 20%나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

이 전 세계에서 처음 제시한 담도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은 담도암 생존 곡선을 올리면서 12년 만에 글로벌 표준 치료까지 바꿨다. 국제적 암 치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도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담도암 1차 치료로 권고한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담도암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쓸 때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명아 교수는 “객관적으로 담도암 장기 생존율을 높인 치료법이 나왔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

비만·과체중도 담도암 위험 키워

권선미 기자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9%	2.3%	0.0%
매우물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짜골신경통

Sciatica

옆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펴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뻐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학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엘리콧시티 · 락빌 · 센터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센터빌 (703)830-4422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꿈과 희망은 이루어진다

송아지 고기 (31)



원웅식
박사·버섯 전문가

옛날 어린시절 시골 친척집에 가면 외양간에서 소똥과 두엄을 긁어 밭에 비료대용용품으로 사용했다. 오늘날 이곳 미국에서는 소똥과 두엄을 가져다 야채나 과일나무 같은 식물에 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 수가 많다.

필자도 애지중지하던 한국산 배나무 한그루를 죽인 적이 있다. 목장에서 소똥을 많이 먹인 소의 분비물에 소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목장에서 소의 배설물이 3~4년 썩어서 새카맣게 된 것도 거름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곳에서는 소의 배설물을 비료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됐다고 한다. 초원에서 풀만 먹고 자란 소는 옛 이야기가 된 것 같

아 쓸쓸한 생각이 든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식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정부, 민간 등 많은 단체들이 해외 홍보와 선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삼하기 짝이 없다.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한식 세계화를 내세울 것인가.

외국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과연 몇 가지나 되는가. 한국인들 대다수가 한국에는 김치가 있고, 갈비가 있고, 불고기가 있다고 한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고 말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옛날 생각에 불과하다. 이곳 미주 지역만 봐도 한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히 대형 한국 식당들이 많이 있다. 오래전부터 식

당을 경영하는 한인들이 주장하는 한국 요리를 국제화 시킨다고 하면서 한국 요리의 진짜 맛은 어디로 사라지고 엉뚱한 맛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갈비, 불고기, 김치 등 진짜 고유한 우리의 맛은 어디로 갔는가. 옛날 어머니들은 갈비나 불고기를 재울 적에는 마늘, 파, 생강, 진간장, 과일즙 등으로 맛을 내 먹였고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한인 식당에 가서 보면 한번 먹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갈비를 예로 보자. 갈비를 재울 때는 파, 마늘, 생강, 과일즙 등을 넣는다. 큰 그릇에다 갈비 살을 떼어 넣고는 콜라, 설탕 등 조미료로 범벅을 한다. 갈비의 맛이 달콤한 것은 서양인들이 단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양인들이 진짜 찾는 것은 한국적인 맛일 것이다. 갈비가 설탕 덩어리로 둔갑했으니 기가 막혀도 한참 막한다.

모든 한인들이 고유의 한국 맛을 찾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식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천천히 연구하며 철저히 조사해서 올바른 식품 문화를 만들어가야겠다. <계속>
▷문의 : 703-915-6114

치아 건강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

월서 임플란트 센터 원장 김필성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화된 요즘이지만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또한 임플란트 시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소비자원이 발표한 임플란트 시술 피해 사례는 이런 점에서 한인들에게도 유익한 정보입니다.

▶부작용 사례 1=30대 김미정(가명·여)씨는 하악(아래턱)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턱 아래와 입술 부위의 감각 이상이 발생해 대학 병원에서 6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마치 벌레가 있는 듯 찌릿찌릿한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그녀는 임플란트 시술 당시 사전에 관련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부작용 사례 2=50대 박남정(남)씨는 상악(위턱) 완전 무치악(모든 치아가 상실) 상태에서 임플란트 4개를 이식받고 2개월 후 앞니 1개, 어금니 2개를 추가 이식받았다. 그리고 6개월 뒤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이식해 넣은 치아 위치 이상과 심하게 흔들려 매식체(이식해 넣은 치아)를 제거하고 다시 이식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00명과 서울시 소재 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891건, 2005년 223건에서 2006년 312건, 2007년 3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복수응답)은 부정교합, 보철물 탈락 및 파절(부러짐) 등의



김필성 원장
LA 월서 임플란트 센터

보철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매식체(이식재료)의 방향과 각도의 오류로 인한 이식실패,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시술 부위 감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시술 전 소비자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26.0%(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전 소비자가 설명 들은 내용은 '임플란트 수명'이 61.7%(1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정보인 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8.7%(26명)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비용 총액 중 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정도는 약 20~40%이며, 치과의사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 의료기관의 시설, 수 개월 간 진행되는 진료 등 시술 과정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시술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권고를 드리자면 가장 먼저 가시고자 하는 치과 또는 주변인이 원하는 치과를 가시기 전에 꼼꼼히 그 치과의사의 경력이나 수련 정도는 인터넷으로 파악해 보시고, 매체 광고를 통해 가격을 광고하는 치과는 절대 가지 마시고, 또 치과의 주인이 나를 치료하는 치과 의사인지 아닌지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진료를 하는 치과의 경우는 사무장 치과일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사후 문제가 생기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치과의사의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심리 상담

반복되는 분노 폭발



문상웅
심리상담가(LCSW)
이웃케어클리닉

최근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을 종종 볼 수 있다. 증간소음으로 시작한 이웃간 갈등이 폭력, 살인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 같은 분노조절 실패가 보복운전, 증오범죄, 총기난사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인기를 끌었던 스티븐 연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Beef)'도 운전 중 난폭 행동, 로드 레이지(road rage)가 발단돼 남녀 주인공이 서로 복수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력적,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흔히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이는 정신의학계 공식 진단명은 아니다. 충동조절 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라는 용어도 자주 쓰는데 이 역시 공식 진단명은 아니며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상위 유형인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Disruptive, Impulsive, Control and Conduct Dysphoria)의 다른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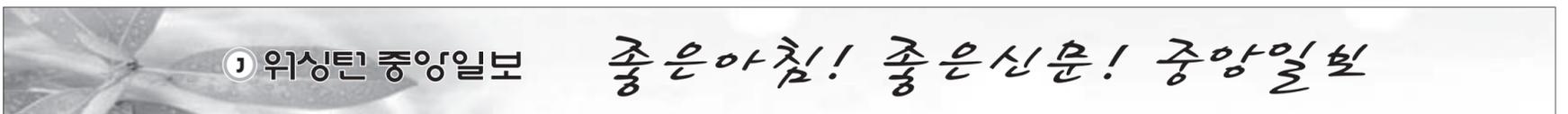
간헐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는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폭력이 동반될 수 있는 분노가 폭발하는 행동 장애로 사소한 일, 일의 중한 정도에 상관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이 특징이다.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폭발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언어적 공격성(비난, 언쟁, 폭언, 분노발작), 재산, 타인, 동물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성이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 발생하면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 신체적 공격성이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

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어도 해당한다. 또 ▶재산 피해, 타인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공격성, 즉 폭행을 포함한 폭발적 행동이 1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진단하는 근거가 된다. ▶행동폭발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동안, 공격성의 정도는 사회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촉발, 유발되는 일반적인 반응을 심하게 넘어서며 ▶이러한 반복적 행동폭발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며 돈, 권력 등의 유희적인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뚜렷한 목적 없이 일어나야 한다. 이외 ▶이러한 공격성으로 인해 현저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직업,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법적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특징 중 하나다.

단,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매우 드문 장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공격성이 다른 어떤 정신질환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된다. 또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행동의 패턴, 자란 환경, 정신질환 히스토리과 가족력, 알코올, 마약, 약 복용 기록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단순히 나타나는 행동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 따라서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는데 원인을 정확히 파악, 그 요인을 제거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J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므로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주요인근에서 3분, 심바스프링 롯데 아울 센터(Home+max)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쉐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k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인어탕+max)와 쉐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골드글러브 유틸리티 부문 영예 2·3루 오가는 '만능 수비' 인정받아 무키 베츠 등 쟁쟁한 경쟁자 제쳐 공격 평가 '실버슬러거' 수상 도전

'어썸 킴'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실력을 인정받았다.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품었다. 골드글러브는 공격이 아닌 수비 실력만을 평가하는 메이저리그 최고 권위의 상이다. 김하성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만능 야수'를 뜻하는 유틸리티 부문에서 생애 처음으로 황금장갑을 차지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골드글러브를 주관하는 폴링스사는 6일 양대 리그를 통틀어 김하성을 유틸리티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만능 플레이어 무키 베츠(LA다저스)와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따돌리고 황금장갑의 주인공으로 김하성을 뽑았다.

1957년 제정된 골드글러브는 투수와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10개 포지션의 최고 수비수를 가린다. 주관사인 야구용품 제작업체 폴링스가 30개 구단 감독과 구단별 최대 6명으로 이뤄진 코치진의 투표 그리고 미국야구연구협회의 수비 지표를 합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지도자 투표는 75%, 수비 지표는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유격수 부문에서 황금장갑을 놓친 김하성은 올해 포지션을 바꿔 도전했다. 샌디에이고가 주전 유격수 샌더 보가츠를 영입하면서 유격수가



김하성은 올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2루수와 3루수, 유격수 등 내야 여러 포지션에서 전천후 수비 능력을 입증해 유틸리티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결정됐다. 10일에는 공격 역량을 평가하는 실버슬러거의 유틸리티 부문 수상에 도전한다. [AP=연합뉴스] (작은사진)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된 김하성을 축하하는 샌디에이고 소셜 미디어 게시물. [샌디에이고 인스타그램 캡처]

아닌 2루수 골드글러브를 노렸다. 이와 함께 유틸리티 후보로도 선정되면서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김하성은 먼저 발표된 2루수 골드글러브에선 아쉽게 물러났다. 시카고 컵스에서 뛰는 니코 호너에게 밀렸다. 그러나 뒤이어 발표된 유틸리티 골드글러브에서 호명돼 생애 처음이자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의 영예를 안았다.

골드글러브 수상은 아시아 선수로도 의미가 깊은 쾌거다. 스키치 이치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메리

칸리그 외야수 골드글러브를 10년 연속 받은 이후 황금장갑을 가져간 아시아 선수는 없었다.

이로써 2021년 빅리거가 된 김하성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내야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 또 이치로의 뒤를 이어 역대 두 번째 아시아 수상자로 기록됐다.

김하성은 올 시즌 샌디에이고의 내야를 오가며 맹활약했다. 2루수로 106경기, 3루수로 30경기, 유격수로 20경기를 뛰었다. 이닝별로는 2루수로 856

과 3분의 2이닝, 3루수로 253과 3분의 1이닝, 유격수로 153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졌다. MLB닷컴은 "샌디에이고는 투수 성향을 분석해 김하성의 포지션을 결정했다. 왼쪽 방면으로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투수가 나오면 김하성은 3루를 맡았고, 주로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내는 투수가 등판하면 2루수로 나왔다"면서 김하성의 전천후 수비 능력이 유틸리티 골드글러브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수비력을 인정받은 김하성은 10일

열리는 실버슬러거 시상식에서 다시 유틸리티 부문 수상을 노린다. 실버슬러거는 포지션별 최고의 공격력을 발휘한 선수에게 트로피를 준다. 김하성은 컵스의 강타자 코디 벨런저 그리고 신시내티 레즈 소속의 스펜서 스티어와 경쟁을 벌인다. 역시 한국 선수로선 첫 도전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이치로가 2001년과 2007년, 2009년 이상을 받았고, LA 에인절스의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는 2021년 지명타자 부문 실버슬러거를 수상했다. **고봉준 기자**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577만9335 유로) 단식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그리고르 디미트로프(17위·불가리아)를 2-0(6-4, 6-3)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단식에서 통산 40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89만 2590 유로(약 89만3080달러)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4대 메이저 다음 등급에 해당하며 1년에 9차

레 열리는 특급 대회들이다.

조코비치에 이어서는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마스터스 1000시리즈 단식에서 36회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올해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US오픈 등 4대 메이저 가운데 3개를 휩쓸었고, 마스터스 1000 시리즈에서는 8월 신시내티 마스터스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결승에서 홀

조코비치 40번째 우승

롤렉스 마스터스 단식 정상 4대 메이저 중 3개 휩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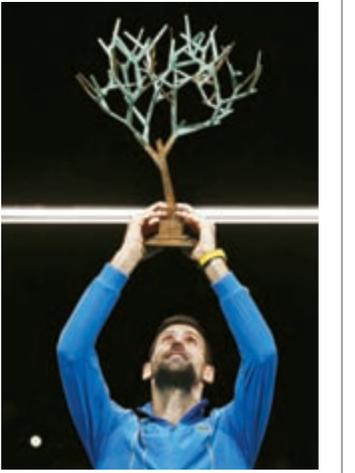
게르 루네(7위·덴마크)에게 져 준우승한 조코비치는 2021년 이후 2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다.

조코비치는 또 이 대회에서 2009년, 2013~2015년, 2019년, 2021년에 이어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7월 워imbledon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에게 2-3(6-1, 6-7

<6-8> 1-6-6-3-4-6)으로 패한 조코비치는 이후 18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코비치는 12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막하는 시즌 최종전 ATP 파이널스에 출전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스터스 1000시리즈 파리 마스터스 정상에서 우승을 차지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고 있다. [로이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연주 까다로운 탱고 음악 악기 “한국·아르헨, 탱고 속 문화 공유”

70여 개의 키를 눌러 만들어내는 140가지 소리. 탱고 음악의 상징인 반도네온은 흔히 ‘악마의 악기’로 통한다. 연주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독일인 하인리히 반트가 고안했고, 이후 이주민들이 아르헨티나로 전파했다는 이 악기는 아코디언과 비슷하게 생겨 간혹 오해를 받는다.

주름통에서 나오는 공기 힘으로 소리 내는 아코디언과 달리 반도네온은 키를 누르는 자체로 소리를 낸다. 스타카토 등 짧은 음 연주가 가능해 보다 정교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다만, 피아노 건반처럼 음계가 순차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같은 키를 눌러도 손의 각도와 주법, 앞서 연주한 음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반도네온의 세계적 권위자 네스토르 마르코니(81) 이름 앞에 ‘테크니션’이 붙는 이유다. 그는 누에보(새로운) 탱고의 창시자 아스토르 피아졸라(1921~92) 생전에 함께 연주했고, 2008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다. 국내 정상인 반도네온 연주자인 그의 제자 고상지(40)는 “마르코니 선생님 연주는 전 세계 모든 반도네온리스트에게 교본과 같다. 극도의 테크닉과 경지에 이르는 연주로 감동을 준다”고 격찬했다.

첫 방한인 그를 지난 12일 서울 마포문화재단에서 만났다. 스승의 인터뷰 소식에 고상지도 한 달음에 달려왔다.

- 첫 내한인데, 한국의 인상은 어떤가.

▶마르코니-“근처 일본까지 와 봤지만, 그간 한국을 올 기회가 없었다. 처음 방문하는 나라라 사실 걱정됐고 신경도 예민해졌다.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건 관객 반응이었다. ‘무대를 좋아



첫 내한 공연을 연 반도네온의 거장 네스토르 마르코니(오른쪽)와 그의 제자 고상지를 지난 12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만났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하겠지’ 짐작은 했으나 이렇게 환호해줄지는 몰랐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다른 나라지만, 탱고 안에서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 스승과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인터뷰 전날 10월 11일 부천에서 함께 공연했다)

▶고상지-“반도네온을 배우기 위해 카이스트 자퇴 후 2009년 아르헨티나에 갔다. 탱고 오케스

트라 학교 에밀리오발카르세 입학 전형 때 마르코니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당시 학교 총디렉터였던 선생님은 심사위원 중 한 분이였다. 과거에도, 지금도, 반도네온 연주를 가장 잘하는 분이라 생각한다.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고 무대를 꾸민다는 건 내게 황금 같은 기회다.”

- 반도네온은 낯선 악기다. 매력은 뭔가.

▶마르코니-“반도네온은 탱고를 가장 잘 표현

하는 악기다. 전에 클래식, 전통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는데, 탱고가 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도네온에 끌렸다. 10살 때 아버지가 반도네온을 가져왔는데, 악기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이것저것 눌러봤다.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탱고를 표현하는데 있어 반도네온 소리가 내 목소리다.”

- 피아졸라 같은 거장과 공연했고, 피아니스트 오라시오 살간(1916~2016)이 결성한 ‘킨테로레알’에서도 연주했다.

▶마르코니-“탱고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연주하는 기회가 늘 있다. 함께 연주하며 많이 배운다. 피아졸라의 경우, 탱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음악가들이라 다름과 같음이 생길 법도 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 마르코니는 어떤 스승이었나.

▶고상지-“연주뿐 아니라 작곡·편곡 활동에 있어서 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다. 학교에서 보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선생님 음반을 많이 들었다. 선생님만의 독특한 리프(반복 악절), 코드 등을 많이 듣다 보니 나중엔 몸에 배어 작업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스타일이 나오더라. 최근 가수 김동률 노래를 편곡했는데, 선생님 음악 스타일의 느낌을 담아 작업했다.”

제자의 칭찬에 마르코니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 가르침이) 긍정적이길 바랄 뿐”이라고 화답했다. 반도네온과 탱고를 즐기는 법을 묻자 그는 “많이 들어야 매력을 알게 된다”고 조언했다.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며 “꾸준히 듣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 매력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환희 기자

“어머니 손호연, 해방 후에도 단가로 명성... 일본인의 말 한마디 덕”

(短歌)

“어머니는 어려서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지 못했어요. 해방 후에는 또 한국어만 써야 했죠. 그때 매일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고민을 하셨어요. 단가를 버려야 하나.”

시인 손호연(1923~2003)은 일본의 전통시인 단가(短歌)의 명인이었다. 단가는 5·7·5·7·7음절씩 모두 31자로 이뤄진 시이며 하이쿠와 함께 일본 문학의 토대를 이루는 장르다. 일제 강점기에 도쿄에서 단가의 대가인 사사키 노부쓰나(佐佐木信綱)를 사사했다. 1997년 아오모리 현에는 그의 시비(詩碑)가 섰다. 2005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회담 도중에 손씨의 단가를 읊었다. ‘절실한 소원이 나에게 하나 있지, 다름 없는 나라와 나라가 되어라’.

그의 딸 이승신 시인은 지난달 31일 중앙일보 인터뷰



에서 “어머니의 100주년, 20주기를 기려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제정하고, 시비를 세운다”고 했다. 평화문학상의 첫 번째 수상자는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94·사진). 일본의 전통문학 연구 권위자로, 고대 일본의 시와 노래를 모은 『만엽집』 연구의 일인자다. 2019년 일왕 나루히토가 즉위하며 새로 정한 연호 레이와(令和)가 『만엽집』에서 나왔고, 이를 나카니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가 나카니시와 어머니의 일화를 들려줬다. “어머니가 문학 감수성이 한창 예민하던 때에 모국어를 못 썼어요.

그때 일본에서 단가를 배우셨죠. 귀국해 무학여고 교사를 하면서도 매일 일기처럼 단가를 썼는데 해방 후에는 또 한국어만 써야 했던 거예요.” 해방 후 일본어로 된 시를

계속 쓰던 손 시인은 고민이 깊었다고 한다. “그때 어머니에게 용기를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했던 분이였어요.”

손 시인은 나카니시를 만났고 고민을 털어냈다. 그때 나카니시는 “당장 부여의 백마강을 보고 와서 시를 계속 쓰라”고 조언했다. “1400년 전 백제가 멸망하고 일본에 넘어온 백제인들이 탄생시킨 장르가 단가”라고 말해주

면서다. 나카니시는 『만엽집』의 가인 중 다수가 백제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고, 단가의 뿌리가 한반도라고 본다. 이씨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가까운 이웃과



단가 명인 손호연의 딸인 이승신씨는 일본 문학의 전문가다.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으로 『왜 교토인가』 두 권을 냈다. 작은 사진은 생전의 손 시인과 이씨. [중앙포토]

다투지 마라’는 시를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시인은 평생 3000편 가까운 작품을 남겼다.

이씨는 “어머니는 그렇게 평화의 상징이 되셨다. 앞으로도 평화문학상을 평화와 관련되고 문학성이 깊은 분들

에게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필운동 ‘모녀시인의 집’에서 7월 오전 11시 시비 건립식을 열고, 같은 날 오후 2시30분부터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손호연 시인의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국제문학포럼을 개최한다. 새로 발간하는 어머니의 시집 2권을 헌정하고 평화문학상을 시상하는 순서도 있다.

이씨는 시비에 평화를 노래하는 어머니의 시를 골라 넣었다. ‘동아시아 끝 나라에 살아온 나, 오로지 평화만을 기원하네’라는 시 등 총 두 편이다. 한글·일본어·영어 세 언어로 시를 새긴다. “시는 그릇이고, 거기에 담긴 어머니의 정신은 평화다. 그 사랑의 시심과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한 정신을 기리려 한다.” 김호정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범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11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페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project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Yardi, and Moraware;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Draft audit reports. 40 hrs/week. Master in accounting or finance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Petra Stone Inc at 2926 Prosperity Ave, Fairfax, VA 22031.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니다.
*신입 환영/경력자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애난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티넷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급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아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셉서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3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급휴가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 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중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중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co.kr
josephleejtbc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급휴가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an@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저희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로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투어구인

매장 스태프,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 Full / part time - 컴퓨터/영어필수
-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급휴가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영업) 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하실분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전망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 855-3565
Ph. (703) 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 페이스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급, 센터빌/첸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폰/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구인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구합니다.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Computer skills are required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AM to 5PM
resume: 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휴선(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력,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티넷: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급휴가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에서 영어, 한국어,

컴퓨터 가능하신 리셉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703.505.0204

메릴랜드

세라믹 빌드업 기사 구함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하실 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첸트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Host / Hostess (한국어 / 영어)
14215-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703-517-6439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텔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력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성업중인
당구 스포츠 바
• 성업중인 미국 당구장 매매 또는 리스
•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8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중앙일보**

(구직) 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분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코리아안 bbq 레스토랑
서버 (파트타임, 풀타임) 매니저 구함
443-953-1127

첼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아안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오피스텔의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험자 우
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루오 오피스단지
703-740-7344

캐리아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움,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첼트리, 현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텔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첼트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 - 8:30)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정가능
19블. 캐트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자세한 사항 문자, 메세지)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 요청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룰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시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 스테포드, Rt.1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요일.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서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플스처지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매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첼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패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 하실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 지역 10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봐 주실분.
571-438-1402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 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봐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매나사스 타운홈, 방3, 화장실 2½,
1 Car Gagage, End Unit, 나무마루,
Costco 1분 거리, 교통편리. \$2,500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패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 3
차고. 패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개 화 3개 벽돌 타운홈
학교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 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드 메트로 옆 타운홈 \$2,850
방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 타운홈, 방 3, 화 4, 1952sqft,
2 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센터빌 H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 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3, 화2, \$1900
New paint, dishwasher,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콘도 렌트>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입구 콘도 렌트
방1, 욕실1, 발코니, 파킹2
11월 초 입주 가능,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10월 1일/초순경 ANNANDALE의 콘도
같이 입주할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팝니다!**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보통맛 · 매운맛

703-470-5238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싱글홈, 방1 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 홈디포뒤방1렌트
출입문 별도, 주차장 있음
571-237-3411

버크 워츠허링 세농음, 학생환영, 금연자,
화장실 별도, 간단취사 가능, 인터넷 포함
703-919-7660

스프링필드타운홀 지하전체
방, 풀베스, 주방, 밝은 거실, 출입문 별도
조용하고 교통 매우 좋음.
여자분 환영
(571) 246-7988

첼트리 롯데근처타운홀반지하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취사가능,가구완비 직장인이나 학생
환영 메세지요망
571-429-2222

애난데일 마트옆싱글하우스
출입문 별도,아래층 전체방2,
거실, 주방, 화장실 1, 세탁실
703-350-2690 / 문자:703- 350-2853

싱글홈 방1 렌트, 조용/교통 편리한 위치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가구완비/인터넷(유료)
301-655-3248

설악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분
방1, 화장실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홀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세탁룸, 단독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팩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 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예촌앞 2층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버크 월마트 도로로 5분.
깨끗하고 환한타운하우스 1층, 방1, 화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지하방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문 별도, 주차, 즉시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방/주차가능/인터넷/
가구완비/냉장고별도/여자분 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1, 욕실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로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 스테이션, 방1, 화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출입
방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지하전체 간단취사 가능. 주차, 인터넷, 유포.
GMU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큰방.
풀 베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작은방 \$350
301-379-96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방 렌트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팩스볼근처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타운하우스
1,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하고 리모델링한 지하각각렌트 가능.
취사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지역 도로 3분거리 GMU 대학교 근처
밝고넓은 거실방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윗층방 1개 화장실
주차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 조용한 싱글홈 렌트
작은방1 화장실 1
학생 &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환영
703-909-1609

센터빌 CVS 근처, 지하전체 렌트, 새카펫, 화
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유포. 문자
571-243-7027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되어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원함.
703-405-900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매나사스 새타운하우스, 2 Car Garage,
End Unit, 2006년 새단지, 방3, 화2½,
Corian Countertops, SS Appliances,

Community(Playground, Basketball,
Pool and Gazebo), Bay window,
\$474,900
▶703-477-3114

덤프리타운하우스, 2016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방3, 화2½, 탁트인 구조,
Granite Counter tops, SS Appliances,
나무 보이는 넓은 Deck, \$399,900
▶703-477-3114

센터빌 타운하우스 3Level, 방2, 화장실2½,
편안하게 Up Grade 된 예쁜 타운 하우스,
새 나무마루, Updated Kitchen, Updated
Basement, Yard Fenced Back, \$450,000
▶703-477-3114

찾기 힘든 독점 리스팅
오픈 하우스 10/28-29(토, 일) 오후 1-3 교
통 좋고 예쁘게 잘 관리된 3레벨싱글하우스.
비엔나, 욕동 고등. 방 5, 화 4.5 (1.225 M)
문의: 703-850-3638
(성함과 텍스트 남겨 주세요)

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 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나온 집.
571-567-5797

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3, 화2.5, 센터빌하이, 리버티미들 학교
703-489-6926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여명
-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½ day)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일터이전 가능한분, 세탁소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 \$780,000. 6일. 용자. 부부운영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안 한층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탁 8천
443-472-8820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입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멘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멘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608-0522

세탁소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마켓내 성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드버에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킴) 240-381-1615

기타

차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일요일 아침 9시 버크레이크 헬터 C에서.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포시즌 워킹클럽
▶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
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 703-470-5238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맛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Falls Church VA 파크안 최고 명당자리 매매
443-355-7700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 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 매매>

Car for Sale
2014 Chevrolet Sonic LT Auto
75,000 Miles, \$4,500
▶연락처: 703-489-6926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여자 3스타 혼마세트 2여행용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 500 0035

2012 Santa Fe SUV Silver 82,000 mile
Good condition \$10,500
703-350-1986

4인용 고급 식탁, 세탁소용 주키 8700
(USA) 햄 미싱매매
240-475-4166

몰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x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멘탈랩 장비와 재료 총 \$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둔 남녀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실분. 문자요망
240-718-8050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 R \$ 600
2) PXG 081 1x+PROTO
10.5도 / R \$170
301-717-7960

<건축/페인트>

My Roofers 영입직 직원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 문의: Mr. 론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 상업용자 / 재정상담
▶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중앙 냉난방
모든 식당 장비 수리/설치, 식당 장비 사고 팝
니다. 에어컨 디션, 히트펌프, 가스 난로,
냉동고, 냉장고
▶ 703-944-2266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Select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중앙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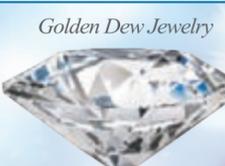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K14, K18, Setting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트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NMSI Inc. NMLS #201332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닝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스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rian: David, are you going to Mary's party on Saturday?
브라이언: 데이비드, 토요일에 매리의 파티에 갈 거야?
David: Yes, I am. Are you?
데이비드: 응, 너는?
Brian: Yes I'll be there. Hey, why don't you bring your guitar? I'm bringing mine.
브라이언: 그럼 나도 갈 거야. 근데 기타 가져오지 그래? 나도 내 거 가져갈게.

David: I don't have my guitar anymore.
데이비드: 이제 기타 없어.
Brian: What?!!
브라이언: 뭐?!!
David: I had to part with it. I sold it.
데이비드: 처분해야 됐어. 팔았어.
Brian: What?!! You sold it?
브라이언: 뭐?!! 팔았다고?
David: I needed the money. I couldn't make my rent. My hours at work were cut.

데이비드: 돈이 필요해서, 렌트비를 못냈거든. 근무 시간이 줄었어.
Brian: I loved that guitar!
브라이언: 그 기타 좋았는데!
David: I had that guitar for a long time. It broke my heart to sell it.
데이비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타였는데. 팔러 니 마음이 아프더라.

▶ make (one's) rent: 렌트비를 내다.
"She needs two jobs just to make her rent."
(그녀는 렌트비를 내기 위해 두 개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 hours (at work) are cut: 근무 시간이 줄다. "His hours at work were cut so he has to get a second job."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는 직업을 하나 더 가져야 했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가로열쇠

(1) 전라남도와 대한 해협 사이에 있는, 섬이 많은 바다 (3) 작고 동글동글한 돌 (5) 겨울철에 입는 옷 (6)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킴. 남의 견해를 무시하고 ~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적대감만 생겨서 일이 되지 않는다 (8) 젊은 사람의 검은 머리에 드문드문 섞여서 난 흰 머리카락 (9)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 (11) 깨어진 거울. 부부의 사이가 틀어져 헤어지는 일. 세기의 커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을 맞이했다 (12) 떡을 찌는 데 쓰는 질그릇 (13) 조선 시대, 지방 관청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남자 하인. 밤이 되자 이 도령은 ~를 앞세워 춘향의 집을 찾아간다 (14) 짐승의 목덜미에 난 긴 털 (15) 암벽에 새긴 불상 (17) 조그만 돌 따위를 손에 쥐고 멀리 내던지는 일 (20)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성□ (21) 운동선수의 등 뒤에 붙이는 번호 (22)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23) 매우 가파른 돌의 언덕. □비□

세로 열쇠

(1) 북이 많음. ~한 가정 (2)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절에서 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 (3)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 (4) 첫들이 되는 날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축하하죠 (5) 아내와 함께 동행함 (7)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죽은 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그 유골을 거두는 불교의 장례 방법 (8)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머슴에게 주는 돈이나 현물 (10)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아니할 때 그 이름 대신으로 내는 말 (11) 잠못 (14) 짙은 초록색. 진분홍 무명 적삼에 ~ 무명 치마를 곁게 차려입었다 (16)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경계를 하는 사람 (17) 가지각색의 온갖 난봉을 부리는 사람 (18) 배우자가 없는 사람.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으로 지냈다 (19) 큰 돌을 몇 개 돌려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 (20) 쿠바의 리듬에 로큰롤, 슐, 재즈 따위를 혼합한 활기에 넘치는 라틴 음악. 정열적이고 다이내믹한 것이 특징 (21)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뵈

스도쿠

	9		1					
		5	7		4			
1	3	7						
			7			2		3
2				8				7
8		9			5			
						8	6	9
			1		4	3		
					9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5	1	2	6	7	9	8	3
2	7	3	9	4	8	1	5	6
6	9	8	1	3	5	2	4	7
1	4	9	5	2	3	6	7	8
7	6	5	4	8	1	3	9	2
3	8	2	6	9	7	4	1	5
9	2	6	8	5	4	7	3	1
8	1	4	3	7	6	5	2	9
5	3	7	2	1	9	8	6	4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도넛가게 매매
 멤피스, 테네시주
 월매상 \$35,000-\$37,000
 넷인컴 \$13,000-\$17,000
 렌트 \$1,800/월
 매매가 \$200,000
 HIGH QUALITY 고객
 백인지역, 알찬가게
 T. 678-451-953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개인/비즈니스/용자전문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 환영
 -크레딧카드 한도 확장 분
 연체 전 연락요망
 -크레딧 안좋은신분 교정/빌드업
 -신용카드 한도만큼 증액해 현금 마련
 -역이민 계획중이신분
 -가계 폐업 고민 중 이신분
 25년 경험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514.1244

고급 노안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방고관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애틀랜타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매매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천주산삼** chunjongsansam.com

삼마니 장석훈의 천주산삼

213.388.1234 (LA)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718.879.2340 (뉴욕)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com
 LC Plaza, P.O.Box 2831, GG, CA 92842

위산역류 통증 · 뱀살
불면증 어지럼 · 두통
항문폴립 요실금 · 전립선
이명·치질 냉증 · 변비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외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삼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유관 도인력사관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기적의 영양제

VC 2000 천연항염, 진통 혈관 탄력
 M3 혈액해독, 숙면 기력회복
 MEGA 뼈, 골수 영양 면역력 강화
 Golden Water 심장, 뇌 현전 용해

로얄 항바이러스 면역력강화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SELLA CARE** 본사 대표 번호 (213) 435-9600

본사(LA): 213,435,9600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코리야타운플라자: 213,739,8874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시운약국: 213,344,9730
 LA 한국마켓 약국: 323,464,3925
 우리약국(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LA별론 갤러리아마켓 약국: 213,388,4100
 현대약국(웨스턴+5가): 213,480,3322
 LA시운마켓 엄마손 약국: 213,739,3030
 올림픽 갤러리아마켓 약국: 323,733,7200
 LA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밸리 소망약국: 818,832,2757
 플러트 내처양양센터: 714,690,012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H마트내): 714,228,921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 약국: 562,402,6972
 웰빙건강 하와이언가든: 562,631,4264
 세리토스 패밀리 약국: 562,402,0500
 부에나팍 플러트 약국: 714,992,4935
 가든그로브 주영아울렛: 714,944,8993
 시운헨스: 949,350,5023

패밀리케어: 714,521,3535
 비치약국: 714,739,8811
 D.B 제이제이약국: 909,595,4003
 텍사스: 214,998,8861
 유타: 801,888,6775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뉴욕/뉴저지: 201,310,8391
 시카고(알바니약국): 847,699,1511
 시카고 서울마켓(헬렌): 224,406,0337
 조지아(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플로리다/NC/SC: 770,457,1717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하와이 흥산나라: 808,952,9966
 하와이 생야촌: 808,381,1909
 캐나다(밴쿠버 롯데건강 백화점): 604,872,1669

한국: 010,4399,6247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본사 대표번호 (213) 435-9600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우메켄 연말 더블 혜택 대전치

▶ 12월 31일까지



“와~ 우메켄이네!”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할인 + 무료 선물

\$98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씨(C)밸런스
\$39

OR



FREE GIFT

캐나다산
오메가3 + CoQ10
\$39

\$165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FREE GIFT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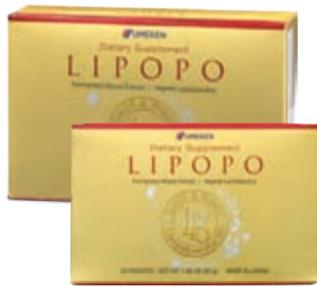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에센스(\$115)

~~\$439~~ ▶ **\$395**

L칼슘(\$69)
무료증정



FREE GIFT

OR

타쿠미 2박스(\$56)
무료증정



FREE GIFT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